

# 2017 제천간디학교 해외이동학습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함께 떠나는  
필리핀 공정여행 & 빠바라바빠반의 베트남 여행

렌트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입맛에 맞는 먹거리 대신 원주민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됨을 느낍니다.



관광화로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원주민들과 복원하고 굶주린 아이가 먹는 빵을 고민하기보단 꿈을 가질 수 있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고민합니다.

정의되지 않는 여행

그래서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워야만 하는 여행

이것이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입니다.



일시: 2017. 5. 21(일) ~ 6. 30(금) / 40박 41일

장소: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일대, 루손섬 북부지역 일대  
+ 베트남 호피민에서 하노이까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협력단체: 유엔개발계획(UNDP) 협력기구 '이푸가오 계단식 논 지키기 운동(SITMo)' / 이푸가오 주 정부  
바공실랑안 지방 정부 / 탐아완 예술인 마을/ 국제 NGO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 바공실랑안 Yes-BS /  
공감만세 필리핀지부(F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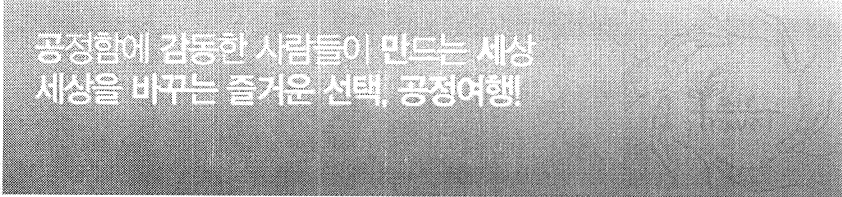
# 목 차

1. 공감만세(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는? -----	3
- 공감만세는?	
- 공감만세 공정여행 원칙	
2. 그것이 궁금하다 -----	8
- 공정여행이란?	
3. 여행 세부일정 -----	14
4. 여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 -----	48
5. 알아두면 유용한 따갈로그어 -----	62
6. 베트남 일정 -----	63
7.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일부발췌) -----	70
8. 착한 커피와 공정무역 이야기 -----	78

## 2017 필리핀 일정

5/21 (일)	5/22	5/23	5/24 (수)	5/25	5/26	5/27 (토)
<p>[이동] 인천공항 16:30</p> <p>인천 - 마닐라 OZ70319:50~22:50 [휴식] ABP</p>	<p>[조식] ABP [OT] UPA [이동] ABP-바세코 [중식] 바세코 [OT] Kabalikat [바세코 활동]</p> <p>[석식] ABP</p>	<p>[조식] ABP [바세코 활동]</p> <p>[중식] 바세코</p> <p>[바세코 활동] 팬스 설치</p> <p>[석식] ABP</p>	<p>[조식] ABP [바세코 활동] 망그로브 심기</p> <p>[중식] 바세코</p> <p>[바세코 활동]</p> <p>[석식] ABP</p>	<p>[조식] ABP [OT] 필리핀</p> <p>[중식] 즐리비 [마닐라 투어] -인트라무로스 -아얄라비블란</p> <p>[석식] 마닐라 시내 [휴식] ABP</p>	<p>[조식] ABP [자유시간]</p> <p>[중식] ABP [이동] 바공실량안 [OT] Yes-BS&amp;간디 [커뮤니티 맵핑] 그림활동 홀스테이 배경안내</p> <p>[석식] YES-BS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마을활동] 시티오버걸 CDC 책읽상 리노베이션 시티오버걸 CDC [교류활동] 시티오버걸</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5/28 (일)	5/29	5/30	5/31 (수)	6/1	6/2	6/3(토)
<p>[조식] 홀스테이 [마을활동] 시티오버걸 CDC 어린이날 준비 [중식] 시티오버걸 [교류활동] 시티오버걸 CDC 어린이날 활동</p> <p>[휴식 및 석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사회적기업활동1]</p> <p>[중식] NASKI</p> <p>[사회적기업활동2]</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교류활동] 2팀</p> <p>[중식] NASKI</p> <p>[사회적기업활동3]</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p> <p>[중식] NASKI</p> <p>[리허설]</p> <p>[Cultural Night] [석식] [휴식] 홀스테이</p>		소풍	소풍
						소풍
						[이동] 마닐라-키양안
6/4 (일)	6/5	6/6	6/7 (수)	6/8	6/9	6/10 (토)
<p>[조식] 홀스테이 [휴식]</p> <p>[중식] 홀스테이 [OT] SITMo [키양안 투어] -전쟁사당 -이푸가오 박물관</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커뮤니티 맵핑] 그림활동</p> <p>[중식] 홀스테이 [봉사활동] 아시아평화도서관 [교류활동] 키양안초등학교</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활동] 나가카단 도서관</p> <p>[중식] 나가카단 [교류활동] 나가카단 초등학교</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오픈 에어 뮤지엄]</p> <p>[중식] 바이니난 [봉사활동] 계단식 논 복원</p> <p>[석식 및 휴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소풍] 우루족포 (중식)</p> <p>[휴식]</p> <p>[석식] 홀스테이 [마을축제]</p>	<p>[조식] 홀스테이 [이동] 지프니 키양안 a 하파오</p> <p>[중식] 하파오 홀스테이 [봉사활동] 계단식 논 복원</p> <p>[휴식 및 석식] 홀스테이</p>	<p>[조식] 홀스테이 [온천]</p> <p>[중식] 홀스테이</p> <p>[휴식 및 석식] 홀스테이</p>
6/11 (일)	6/12	6/13	6/14	6/15	6/16	6/17 (토)
<p>[조식] 홀스테이 [이동] 바나웨 - 바기오</p> <p>[석식] 바기오 시내 [자유시간] 야시장 [휴식] 마운틴롯지</p>	<p>[조식] 마운틴롯지 [바기오 투어] -팔아완 마을 -마인즈부파크 -바기오 시장 -중식</p> <p>[석식 및 휴식] 마운틴 롯지</p>	<p>[조식] 마운틴 롯지 [자유시간] 바기오</p> <p>[석식 및 휴식] 마운틴 롯지</p>	<p>[이동] 터미널 [이동] 바기오 - 마닐라 [중식] 휴게소</p> <p>[석식] ABP</p>	<p>[중식] Mall of Asia</p>	<p>자유 일정</p>	<p>베트남 여행 준비</p>

# 1. 공감만세(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는?



20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의기투합하여 만든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지역마다 10개의 단체와 함께 공정여행 공동체를 구성, 6개월 간 10회의 답사 100회의 회의를 통해 공정여행 상품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행 상품 매출의 90% 지역사회 회원, 이익의 10% 환경단체 기부, 10명의 원주민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여행을 할 때, 1명의 저소득층 아이에게 공정여행을 제공하고, 이런 시도를 통해 세상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우리는 여행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입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 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조직(NGO)과 영리 기업의 중간형태이며, **공감만세는 고용노동부 인증(2012-611) 사회적기업입니다.**

- 11 기업의 목적은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 12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수행
- 13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14 의사결정도 주주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

## 공감만세 목적과 목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구와 지역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들과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살맛있고, 배우는



## 바탕선

01

### 공정여행 가치 확산

공정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공정여행가 양성

02

### 사회직업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재정, 문화예술교육  
창업 유도 및 인큐베이팅

03

### 아시아 공정여행 마을 구축

국내 1,000개  
아시아 50개  
사람과 지역이 중심인  
공정여행 마을 구축

04

### 여행은 공공재

경제 수중과 상관없이  
공정여행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확산

## 주요사업



### 공정여행

해외공정여행  
국내공정여행



### 맞춤여행

1인 가족  
기업, 공공기관  
동호회(동아리)  
초·중·고·대학



### 교육과정

주부 여행학교  
청소년 여행학교  
시니어 여행학교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 출동강좌

진로교육  
공정여행  
국제교류  
사회직업



### 사회공헌

여행나눔  
필리핀 공무원  
태국 도서관  
수술 지원사업  
해외자원봉사



### 마을만들기

공정여행을 활용한  
지역재정·지원  
프로젝트

## 비즈니스

대전·충남·충북·청남 사회직업인 법인 설립  
정부 지원이 아닌 직원 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  
솔루션, 민간 사업시행권 소유를 통한 아시아 및 주주총회  
구립 (이사회 :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1주1000원, 100명(임원직책소 등))

12개월 /  
30개 지역

공정여행을 진행하는 곳  
양곡, 유원, 호수,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부산, 대만,  
홍콩, 네덜란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제주도를 등



312+

공정여행에 다녀온 뒤, 공직연계 사회공헌 교육사업  
유형제 운영하는 참가회원자  
매달 5만원 이상 CMG를 통해 후원  
2016년 03월 기준



30%

사람, 지역, 자원을 주제로 공정여행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

- 필리핀 : 유네스코 필리핀 위원회, 유엔개발계획 (UNDP) 협력 기관, 시드모(SIM) 협약  
예술인 마을, 아산농업지원  
• 태 국 : 원안 주정부 (제주대학교,  
태국정부개발재단 등)  
• 중 국 : Y여행문화조합, 송동 등  
• 일 본 : 아시아 아시아 평화도서관, 울진도매도  
• 부 딴 : 부탄 관광위원회(BOT), 하리아나,  
오리엔탈 투어



6,800+



1,100+

공직연계 국내 해외공정여행지/  
공직연계 여행나눔 및 교육수혜자(소외계층 아동)  
2010년 1월 ~ 2014년 12월



4+

사회공헌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시설

필리핀 도시문화지역 (비세고 공무원)  
이공신원인 여행나눔  
필리핀 삼안소수민족지역 (이류가산 도서관)  
태국 농촌지역 (나리우카우 도서관)



공정여행 참가비는 직할회기(66%) 재차(17%) /  
공정여행 만족도  
공직연계 국내 해외공정여행 설문조사  
2010년~2011년

- 2010**

  - 1월 (지회양제직소·청년 사회혁신기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선정
  - 10월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대전충청권역 최우수상
  - 11월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전국 우수상
- 2011**

  - 4월 주식회사 공간만세 법인 설립
  - 8월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11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우수 표창
- 2012**

  - 2월 안전행정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5월 한국관광공사 제2회 창조관광벤처 우수상
  - 9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2012-061호)
  - ~1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 선정
  - ~14년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선정
  -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우수 표창
- 2013**

  - 3월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교육진흥원 궁도력 토요문화학교 공모 선정
  - 4월 수출입은행·함께일하는재단 50 희망씨앗 전파 사업 공모 선정
  - 11월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컨테스트 성장기 부문 2등상 수상
- 2014**

  - 12월 외교통상부 소관 시민법인 공간만세인터내셔널 출연 설립
  - 12월 사회적기업 전국활성화네트워크 대전지역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 2015**

  - 4월 대전문화재단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동네 '월드심 소통여행' 선정
  - 대전시·대전관광협회 대전 월드심 공정여행 '대충돌 사람들' 선정
  - 6월 창조관광공사 공모전 창조관광기업 선정
  - 한국여행업협회 주관 '편견을 넘어 가슴위는 필리핀 루순섬여행학교' 우수여행상품 선정
  - 2015년 대전광역시, 중구청 주최 (주)공간만세 주관 '대전 월드심 사회혁신로드 진행'
- 2016**

  -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전문컨설팅)기관 등록

#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구와 지역이 미소 짓는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



여행은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 소비보다는 관계를 지향하는 여행
- 여행지에 대해 현지인에게 듣고, 열정을 얻는 여행
- 신제품, 상품 확대, 노동, 학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여행



지구와 지역이 웃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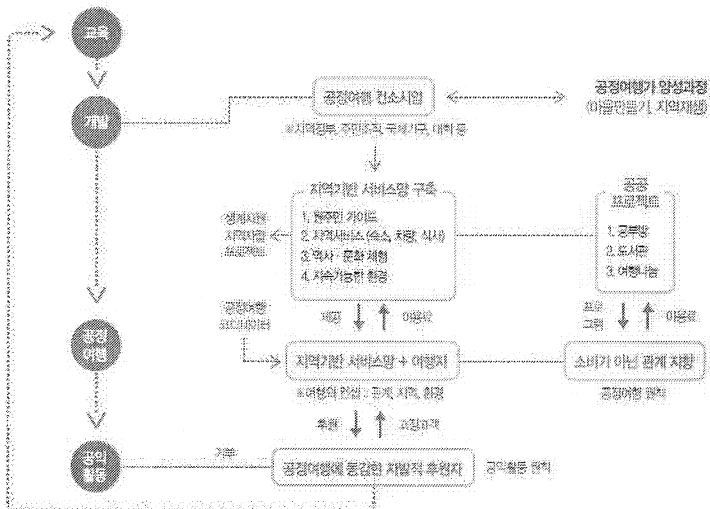
- 일주일 가이드를 고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 이용
- 기념품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공정무역 제품으로 구입하기
- 현지 교통 수단 이용
- 걷는 여행을 지향하고 탄소 상쇄를 위한 나무심기나 다짐레슬 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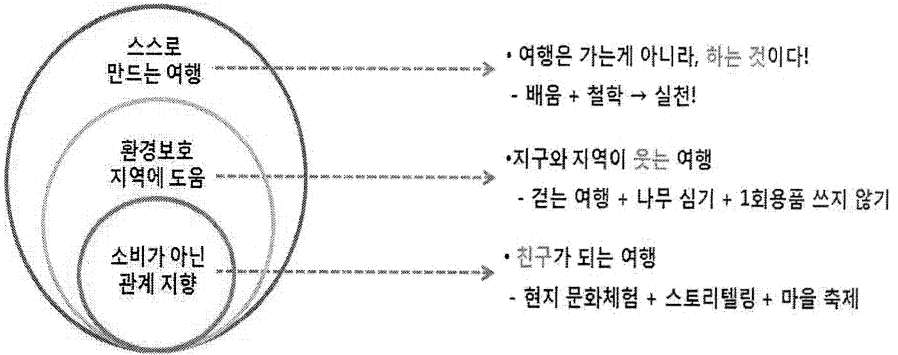
쉼(休)과 배우는 여행

- 매 순간 현지인과 소통하는 여행
-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배우는 여행 (박물관, 미술관, 서점 등)
- 현지인과 관계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힐링이 되는 여행
- 여행 수익금은 전액 사회공헌이 되는 공정한 여행

## 공정여행 순환 구조



## 1.2. 공감만세의 공정여행 원칙



**하나. 한국사람 10명이 떠날 때, 현지인 1명도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

서유럽인 69명이 여행할 때, 아프리카인 1~2명만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사람 10명이 떠날 때, 여행경비 나눔을 통해 현지인 1명도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나눔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 현지와 현지인에게 치르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둘.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명상하는 여행. 그 명상이 주변과 소통하는 여행.**

하루 세 번, 하늘 볼 여유도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이들과 명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명상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며 여행을 이어갑니다.

**셋.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공정한 여행을 불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넷. 기획부터 진행까지, 참가자와 길잡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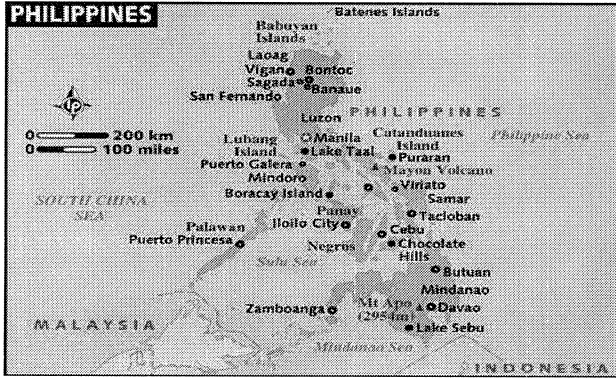
길잡이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 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상태에서 참가자와 길잡이는 여행의 진행을 함께 고민하며, 가이드만이 정보를 독점했던 기존 관광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 봅니다.

**다섯. 고민하고, 소통한 뒤, 실천하는 여행.**

공정여행 원칙이라 무조건 따르지만 한다면 재미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기부하는 여행, 동물학대 금지 등 공정한 여행을 위한 방법들을 여행 내내 고민해보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여행을 합니다.

## 2. 그것이 궁금하다

### 2.1. 우리는 왜 필리핀으로 떠날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떠남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만남에 대한 환상입니다. 떠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구성하는 것은 오만이며 삶과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원히 떠날 수 없듯이 그들 역시 떠날 수 없는 그들의 과거를 짐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였습니다. 어느 곳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 그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땅의 최선이었고 그 세월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존중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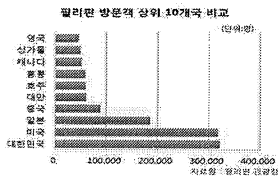
- 신영복의 '더불어 숲' 중 일부 발췌 -

필리핀 인구 1억명 중 5천만명 이상은 빈민

인구 1억명 중 2천만명 이상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

“한국 기업 필리핀 진출 활발” (2009년 2월,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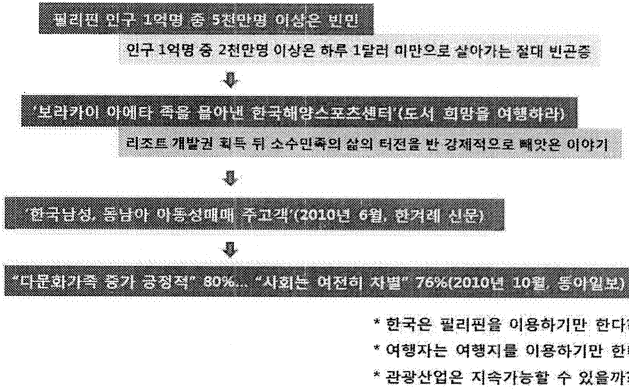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 한국인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기업	현황
한진중공업	투자비 7억달러, 수위조전소 완공
한국전력	필리핀전력수 등 4개 전력프로젝트 수월
삼성전자	MLCC(액종세라믹콘덴서) 공장 두고 생산전환
포스텍	연 5만 t 생산규모 코일센터 준공
CJ제일제당	민다나오에 김치류 생산공장 설립 추진
삼성전자	판매법인 두고 휴대폰, 가전제품
LG전자	마케팅

→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필리핀은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런 필리핀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막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군대를 주둔 시키는 미국보다 관광객 수가 더 많아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 국가가 된 한국, 우리들이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 하지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의 여행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관광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소수 민족을 몰아내며 관광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아동 성매매의 주고객이라는 불명예를 훈장처럼 달았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동남아 사람(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죠)에 대한 편견은 공감만세에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냉철하게 보자면, 본인들의 관광 욕구를 위해 필리핀을 이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필리핀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은 시작 되었습니다.

**이유 하나.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의 관광은 딱 세 단어로 정의하곤 했습니다.**

"섹스, 골프, 그리고 해변 리조트".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 운영은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구잡이로 파괴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토호들이 운영 하는 해변 리조트에 아무리 우리가 계속 관광을 간들, 그들의 경제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착취나 제대로된 보상없이 이루어지는 난개발에 일조하는 꼴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의 기사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공정여행을 이야기 한 '희망을 여행하라'와 같은 책들로 정확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자본을 소비함으로써 진행된 여행의 폐해라 생각하고, 이것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여행을 해왔습니다. 내가 여행을 통해 만족하기 위해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어떤 희생을 갖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아픔, 파랗파랗했던 자연환경의 파괴 등 그들의 희생은 그저 자본이란 이름 앞에

굴복해버리고만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국민소득 1천불을 달성했던 필리핀, 지금도 그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국민의 60%가 빈곤선에 시달리고, 세계 각 국의 구호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 1, 2위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말의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 둘. 필리핀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나라입니다.**

400여 년간 스페인, 미국, 일본,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치욕스런 식민 강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마르코스라는 군인 출신의 독재자가 20여 년 간 사회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피플 파워(People Power)'라 불리는 민중 혁명은 독재를 종식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필리핀에 자리 잡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일제 강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자리 잡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배제하고도 우리는 다양한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앗이와 두레와 유사한 공동체 정신은 필리핀 사회 곳곳에 살아 있고, 대가족을 이루며 혈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사회구성은 아직까지도 필리핀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발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셋.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1억이나 되는 인구, 7천 개가 넘는 섬, 해발 2천 미터를 넘나드는 수려한 산악 지형과 팔라완의 엘니도, 보홀의 망그로브 숲, 보라카이해의 해변 등으로 일컬어지는 환상적인 해상지형, 그리고 수많은 지하자원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고 있는 황금 해상 루트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지사와 공장을 필리핀에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서글서글하면서 유머러스한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는 당신을 그들의 매력에 매료시키기 충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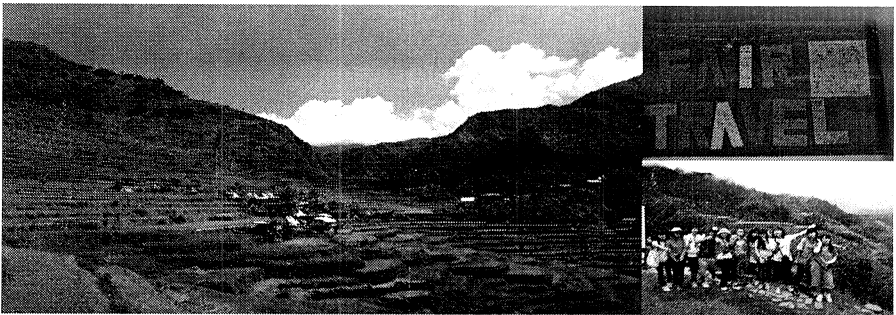
이 두 가지는 당신 안에 자리 잡은 근거 없는 편견과 오해-동남아시아에 대한-를 조금씩 견어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라는 가깝고도 먼 곳을 새롭게 조망해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도 있겠지요!

**이유 넷. 무분별한 관광은 필리핀을 힘들게 합니다.**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인 세계문화유산. 필리핀 루손섬 중북부 코딜레라 산맥 이푸가오 주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계단식 논’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관광화와 개발, 이촌향도 등의 현상은 2천년 이어져온 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계단식 논’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지금도 그 곳을 찾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을 걸으며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가르침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찬란한 유산을 복원하는 작업에 참가합니다.

위의 이야기들은 공감만세가 필리핀 공정여행을 고민하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 2.2. 그것이 궁금하다 -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이란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여행하는 이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여행,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닌 관계의 여행이다.

### 관광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한다?

그것이 평범한 여행자들이 관광산업에 관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발리의 아름다운 리조트 바깥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가난했고, 보라카이의 아름다운 호텔 바깥을 나서 시내로 들어서면 구걸하는 아이들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곳에 머무는 여행자들이 하루에 쓰는 돈은 그곳 사람들 한 달 월급에 달한다고 하건만, 그토록



많은 여행자들이 발리로, 보라카이로, 몰디브로 여행을 떠나건만, 왜 여전히 여행지에서 만나는 현지 사람들은 가난한 것일까? 우리가 여행을 하며 쓰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공정여행이었다. 물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자 세상은 여행의 그늘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 **한사람의 여행자가 여행할 때**

하루 평균 3.5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남기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주민 30명이 쓰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 고급 객실의 호텔 하나에서는 평균 1.5톤의 물이 사용된다. 골프장 하나에서는 무려 다섯 개 마을의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이 사용되고 있다.

한 가족이 하루를 살기 위해 20리터의 물을 1킬로미터 이내에서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하루 한 두 시간 밖에 전기를 쓸 수 없는 지역에서도 우리는 수영을 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골프를 친다. 저 높은 히말라야에선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여행자 한 사람의 더운물 샤워를 위해 세 그루의 나무가 사라져가고, 한 사람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72개의 플라스틱 물병이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겨진다.

### **때로 우리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아름다운 호텔 뒤켠 세탁실에선 하루 종일 서서 시트를 다림질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존재하고, 우리의 편안한 트레킹을 위해 히말라야의 포터들은 하루 3~4달러의 일당을 받으며 자신의 몸무게를 넘어서는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오르고 있기도 하다.

### **때로 우리의 아름답고 고요한 바닷가를 위해**

리조트들은 그 바다의 주인이었던 현지인의 출입을 금했고, 리조트에 마을을 내어준 가난한 어부들이 그들의 여장이었던 연안에서 고기를 잡다가 바다의 풍경을 어지럽히고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선 점점 늘어가는 사파리 관광객을 위해 초원의 주인이었던 소수 부족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사냥터전과 마을, 우물을 모두 빼앗긴 채 강제이주를 당하는 일이 펼쳐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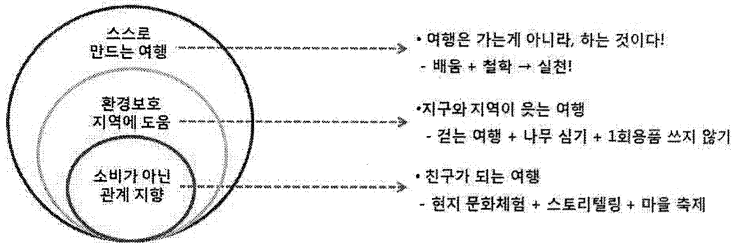
관광개발업자들은 약속한 일지리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를 위해 마을을, 밭을, 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부족의 성스러운 제의를 호텔의 쇼로 올릴 기회를, 호텔의 청소부가 될 기회를, 어린 딸들을 관광객을 위해 일하게 할 기회들을 제공해 주곤 했다.

만약, 우리가 깃든 호텔이 누군가의 집을 빼앗은 것이었다면,  
우리가 수영하는 수영장의 물이 누군가 마실 물이었다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숲이 파괴되고 동물이 학대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여행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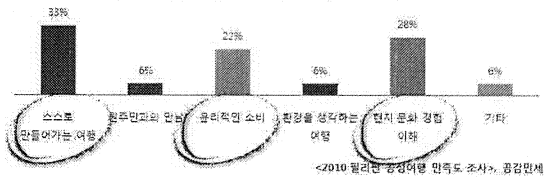
- 희망을 여행하라 / 이매진 피스 임영신.이혜영 지음 중 일부 발췌 -

→ 지난 50년, 세계 인구가 두 배 늘어나는 동안 관광인구는 36배 증가했습니다(1950년 2천 5백만 명 → 2009년 8억 8백만 명). 2009년 관광은 세계 GDP의 10.3%, 세계 노동 인구의 8.7%를 고용하고, 그 해 세계 관광 수입은 9천 4백 6십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관광은 그 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이란?



### 패키지여행과 공정여행의 가장 큰 차이는?



→ 공감만세는 그동안의 공정여행 답사 및 운용 경험과 위와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감만세 공정여행의 핵심은 '여행자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아닌 여행의 키워드로 묶인 원주민,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도 공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여행 세부일정

① 5월 21일 일요일, 1일자		
일시	내용	비고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출국장 집결</li> </ul>	공항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출발 - 마닐라공항 도착</li> <li>※ 아시아나항공 7C2305편(19:35 ~ 22:40)을 이용합니다.</li> </ul>	항공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체크인</li> <li>- 아시안브릿지는 아시아 연대 및 함께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기구로, 처음 필리핀에 설립하여 현재 센터 역할과 필리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필리핀 도시 빈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숙소를 이용함으로써 그 공익 활동에 참여합니다.</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대절차량

▷ M E M O ◁

② 5월 22일 월요일, 2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 필리핀의 도시빈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A(Urban Poor Association)는 퀘존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로, 필리핀 도시 빈민들의 자립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UPA 실무자가 들려주는 필리핀의 도시빈민과 도시빈민 자립프로젝트. '도시빈민'이라는 네 글자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을 마주합니다.</li> </ul> </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 바세코, 그리고 까발리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닐라 근처에 있는 도시빈민지역 중 바세코(Baseco)에 방문하여 주민조직 까발리깃(Kabalikat)은 어떤 곳인지 바세코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들어봅니다.</li> <li>- 마을주민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바세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li> </ul> </li> </ul>	강의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세코)</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3: 바세코 활동 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세코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도시빈민지역으로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공재인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망그로브 농장조성'은 바세코 주민의 주거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카발리깃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어떻게 바세코를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li> </ul> </li> <li>■ 휴식</li> </ul>	대절차량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 M E M O ◁

#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우리의 여행은

>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 우리가 정하고 지키는 40일간의 여행 규칙 !

- 여행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Friends have all things in common.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③ 5월 23일 화요일, 3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출발 - 바세코 도착</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4: 바세코 활동 ②</b> - 주민조직 까발리깃(Kabalikat)의 지역 활동에 참여합니다.</li> </ul>	대절차량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세코)</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5: 바세코 활동 ③</b> - 주민조직 까발리깃(Kabalikat)의 지역 활동에 참여합니다.</li> <li>■ 휴식</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④ 5월 24일 수요일, 4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출발 - 바세코 도착</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5: 바세코 활동 ②</b> - 주민조직 까발리깃(Kabalikat)의 지역 활동에 참여합니다.</li> </ul>	대절차량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세코)</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6: 바세코 활동 ③</b> - 주민조직 까발리깃(Kabalikat)의 지역 활동에 참여합니다.</li> <li>■ 마음나누기: 필리핀의 빈부격차, 어떻게 바라봐야할까?</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 M E M O ◁

⑤ 5월 25일 목요일, 5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7: 필리핀 이야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사람이 들려주는 필리핀 이야기! 공감만세 필리핀지부 인토이(Intoy)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li> </ul> </li> </ul>	강의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줄리비)</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8: 인트라무로스(Intramuro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트라무로스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인트라무로스는 '벽 안에서'라는 뜻을 지닙니다. 인트라무로스를 걸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성 어거스틴 성당과 산티아고 요새, 유럽식 거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li> <li>- 십자가를 앞세워 필리핀 땅에 처음 발을 내딛은 스페인 제국주의, 지금 우리 곁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으로 남아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li> </ul> </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9: 아얄라(Ayala)박물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얄라박물관은 마카티에 위치한 거의 유일한 박물관으로 필리핀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한 민족적, 고고학적 전시를 선보입니다.</li> <li>* 마카티(Makati)</li> <li>- 마닐라의 비즈니스 중심지인 마카티는 레스토랑 및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건물들에는 필리핀의 대기업과 대다수의 주요 호텔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건물 모두 2차대전 후 아얄라 일가가 무너진 도시 구역에 건물을 세울 기회를 얻으면서 건축된 것들입니다.</li> </ul> </li> </ul>	대절차량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마음나누기: 역사는 왜 알아야 할까?</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 M E M O ◁



## < 빙고 게임 >

감옥에 수감된 호세 리잘 (사진)	노란색 (사진)	중년의 신사와 한 컷 (사진)	친구의 미소 (사진)	산티아고 요새가 세워진 연도는?
정호쌤에게 칭찬 한마디 (직접 확인예정)	성 어거스틴 성당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마차 (사진)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 뜻은?	대포 (사진)
현지인과 한 컷 (사진)	파란색 (사진)	점프 샷 (사진)	분수 (사진)	산티아고 요새 정문 (사진)
강 (사진)	창살 (사진)	민혜쌤에게 칭찬 한마디 (직접 확인예정)	빨간색 (사진)	필리핀을 지배한 국가는?
육각형 (사진)	무성한 나무 (사진)	호세 리잘이 쓴 <마지막 인사> 첫 문장은?	행복 (사진)	십자가 (사진)

### \* 빙고게임 규칙

- ① 각 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서 적거나 행동을 사진으로 찍는다.  
\* 촬영도구가 없는 경우는 친구와 조를 이뤄 빙고를 완성해도 무방하다.
- ② 총 5줄을 완성하면 공감만세 선생님에게 '빙고'를 외치며 찾아온다.
- ③ 찾은 답, 찍은 사진을 공감만세 선생님에게 확인받는다.
- ④ 상품을 받는다. 상품은 선착순 5명만 받을 수 있다.

⑥ 5월 26일 금요일, 6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휴식</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출발 - 바공실랑안 도착</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공실랑안)</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0: '바공실랑안'은 어떤 곳일까?</b> - 바공실랑안은 어떤 곳인지, 바공실랑안 Yes-BS가 어떤 단체인지 들어봅니다. 또한, 바공실랑안 청년들에게 간디학교는 어떤 곳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1: 친구와 함께 동네 한바퀴</b>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바공실랑안 Yes-BS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바공실랑안을 둘러봅니다. * 바나나큐, 부코주스 등 필리핀 현지 간식을 체험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li> <li>* 홈스테이 배정</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⑦ 5월 27일 토요일, 7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시티오 바깥(Sitio Bakal) 이동</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2: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외곽에 어린이집이 생긴 연유는 무엇인지 월마 선생님과 이야기를 들어 보고, 책걸상 보수 활동에 참여합니다.</li> <li>- 또한,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li> </ul> </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공실랑안)</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3: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공실랑안 Yes-BS와 함께 지역활동 - Urban Gardening을 진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활동 전날에 공지합니다.</li> </ul> </li> </ul>	대중교통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과정은 유엔 여성 시민사회전문가 그룹 주민조직 '담파(DAMPA)'의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곳들입니다. 대부분 국제기구 및 필리핀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수익을 아이들 교육이나 마을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안전한 홈스테이입니다.</li> </ul> </li> </ul>	

▷ M E M O ◁

⑧ 5월 28일 일요일, 8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시티오 베테란(Sitio Veteran) 이동</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4: 바공실랑안 문화교류활동 ①</b> - 문화교류활동을 준비합니다. (게임 준비물, 학용품 구입, 간식, 음향 장비 등)</li> </ul>	도보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시티오 베레란)</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5: 바공실랑안 문화교류활동 ②</b> - Yes-BS, 간디학교가 준비한 문화교류활동을 지역아동들과 함께 진행합니다.</li> <li>■ 휴식</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⑨ 5월 29일 월요일, 9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6: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적기업(리사이클링 액세서리 제작, 사리사리스토어, 푸드트럭)에 참여하여 일일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봅니다. 3개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li> </ul> </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공실랑안)</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7: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적기업(리사이클링 액세서리 제작, 사리사리스토어, 푸드트럭)에 참여하여 일일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봅니다. 3개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li> </ul> </li> <li>■ 휴식</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⑩ 5월 30일 화요일, 10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8: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적기업(리사이클링 액세서리 제작, 사리사리스토어, 푸드트럭)에 참여하여 일일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봅니다. 3개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li> </ul> </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공실랑안)</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19: 바공실랑안 지역활동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적기업(Catering Service)에 참여하여 일일 사회적기업가가 되어 봅니다.</li> </ul> </li> <li>■ 마음나누기: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속가능성</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 5월 31일 수요일, 11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li>■ Cultural Night Show 무대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축제를 준비할까요? 무대세팅부터 리허설까지 Yes-BS와 함께 준비하면서 필리핀 축제문화를 알아봅니다.</li> </ul> </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공실랑안)</li> <li>■ Cultural Night Show 최종 리허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축제를 준비할까요? 무대세팅부터 리허설까지 Yes-BS와 함께 준비하면서 필리핀 축제문화를 알아봅니다.</li> </ul> </li> <li>■ 저녁식사(바공실랑안 홈스테이)</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공실랑안에서의 마지막 밤: Cultural Night S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공실랑안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li> </ul> </li> <li>■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 필리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을

내가 태어난 곳이 바공실랑안이라면?



⑫ 6월 1일 목요일, 12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시 타야바스(Tayabas) 출발</li> <li>- 아침식사는 이동 중 합니다.</li> </ul>	대절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야바스(Tayabas) ~ Mauban Port ~ 캐그발렛(Cagbalete) 섬</li> </ul>	방카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리조트)</li> <li>■ 캐그발렛(Cagbalete) 섬: 자유시간</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리조트)</li> <li>■ 리조트 숙박</li> </ul>	

▷ M E M O ◁

⑬ 6월 2일 금요일, 13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리조트)</li> <li>■ 캐그발렛(Cagbalete) 섬: 호핑투어</li> </ul>	방카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리조트)</li> <li>■ 리조트 ~ Mauban Port ~ 타야바스(Tayabas)</li> <li>■ 타야바스 숙소 체크인</li> <li>■ 휴식 및 자유시간</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타야바스)</li> <li>■ 타야바스 숙소 숙박</li> </ul>	

▷ M E M O ◁

⑭ 6월 3일 토요일, 14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타야바스 숙소)</li> <li>■ 휴식 및 자유시간</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타야바스)</li> <li>■ 타야바스(Tayabas) 시티투어</li> </ul>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닐라로 이동</li> </ul>	대절차량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버스터미널 근처)</li> <li>■ 코다라인 버스터미널 출발 - 키앙안 도착 (야간버스)</li> </ul> <p>- 버스에는 에어컨이 나와 추울 수 있으니, 두꺼운 옷과 담요를 준비합니다. 총 2차례 쉬어갑니다. * 약 8시간 소요됩니다.</p>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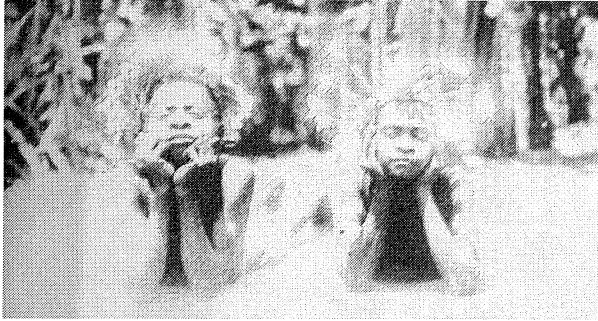
▷ M E M O ◁

⑮ 6월 4일 일요일, 15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시 키앙안 도착</li> <li>- 홈스테이 배정 후 각자 홈스테이로 이동합니다.</li> <li>■ 아침식사(키앙안 홈스테이)</li> <li>■ 휴식</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키앙안 홈스테이)</li> <li>■ 13시 집결(키앙안 여행자센터)</li> <li>- 키앙안 여행자센터에 들러 여행자등록을 합니다.</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0: SITMo는 어떤 곳일까?</li> <li>- SITMo(Save the Ifugao Terraces Movement)는 왜 그들의 생계가 아닌 세계문화유산 지키기 위한 공익 활동을 지속할까?</li> <li>- 시트모 스태프에게 듣는 “나와 키앙안, 그리고 시트모”</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1: 쓰라린 기억, 종전지역 키앙안</li> <li>- 제2차 세계대전 시, 필리핀을 전쟁터 삼아 싸웠던 일본과 미국, 그들의 마지막 격전지에 세워진 전쟁사당과 이푸가오 박물관을 시트모 에코투어 가이드와 함께합니다.</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키앙안 홈스테이)</li> <li>■ 키앙안 홈스테이 숙박</li> <li>- 홈스테이 가정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단란한 저녁시간을 보냅니다</li> <li>* 지방정부 관리나 국제기구 스태프들의 안전한 집에서 홈스테이(키앙안 지방정부 인증)가 진행됩니다.</li> </ul>	

▷ M E M O ◁

## 어느 히피가 말한 어느 섬의 일생



지구의 진동으로 '섬'이 태어났다.  
근처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찾아 섬에 정착했다.  
히피들이 마리화나를 찾아 섬에 정착했다.  
서퍼들이 파도를 찾아 섬에 정착했다.  
자연스럽게 작은 카페와 여관들이 띄엄띄엄 생겨났다.  
여행 전문가들이 하나둘 드나들었다.  
어느 바보 같은 녀석이 가이드북에 소개했다.  
관광객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부는 두려워 떨고 히피와 서퍼는 섬을 떠났다.  
대기업 호텔이며 기념품 숍이 마구마구 생겨났다.  
관광객이 노도처럼 밀려들었다.  
원주민은 모두 똑같이 삶을 바꾸고 문화를 버리고  
관광객을 상대로 돈이 되는 장사를 시작했다.  
섬은 더럽혀지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생태계까지 변해 버렸다.  
'섬'은 죽었다.

- <LOVE&FREE> 중

⑩ 6월 5일 월요일, 16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p>■ 아침식사(키양안 홈스테이)</p> <p>■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2 마을탐방 키양안 이야기지도 그리기</b></p> <p>- 해발 1천 7백미터의 필리핀 소수민족이 사는 아기자기한 마을, 키양안을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수집하고 지도를 만들면서 지역을 파악합니다.</p> <p>- 키양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 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은 무엇이고, 키양안이라는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p>	
오후	<p>■ 점심식사(키양안 홈스테이)</p> <p>■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3: 이푸가오 아시아평화도서관</b></p> <p>- 키양안 초등학교 친구들과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합니다.</p> <p>* 공감만세와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시트모가 담당하여 세운 이푸가오 아시아 평화 도서관. 규모나 시설은 보잘 것 없지만 이푸가오 자치주 최초의 도서관이자 그들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할 공간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지 중 하나로서 아시아 평화가 주요 컨셉 중 하나인 이 공간에서, 왜곡된 여행 문화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현지인들과 함께 공정여행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p>	도보
저녁	<p>■ 저녁식사(키양안 홈스테이)</p> <p>■ 키양안 홈스테이 숙박</p>	

▷ M E M O ◁

⑰ 6월 6일 화요일, 17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키양안 홈스테이)</li> <li>■ 나가카단 계단식 논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프니 혹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합니다.</li> <li>- 계단식 논까지 트래킹으로 이동합니다. (운동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li> </ul> </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4: 임블리끄리끄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가카단 계단식 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임블리끄리끄락에 올라 나가카단 마을 전망을 감상합니다.</li> </ul> </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빌롱마을)</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5: 나가카단 초등학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가카단 계단식 논과 어우러진 작은 초등학교에 방문합니다.</li> <li>-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문화 교류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서로를 소개를 하고, 그림그리기 및 놀이 등을 준비하여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li> </ul> </li> <li>■ 키양안으로 이동</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키양안 홈스테이)</li> <li>■ 키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 6월 7일 수요일, 18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키양안 홈스테이)</li> <li>■ 바이니난 계단식 논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프니 혹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합니다.</li> <li>- 계단식 논까지 트래킹으로 이동합니다. (운동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li> </ul> </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6: Living Library(사람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시간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일을 해 오신 마리아 할머니께 계단식 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들에게 계단식 논은 어떤 의미일까요?</li> </ul> </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빌롱마을)</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7: '계단식 논' 복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푸가오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인 계단식 논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작업에 참여하며, 그들의 삶에 깊게 다가갑니다.</li> </ul> </li> <li>■ 키양안으로 이동</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키양안 홈스테이)</li> <li>■ <b>마음나누기: 봉사활동의 의미</b></li> <li>■ 키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 세계문화유산 계단식 논을 복원하다

나라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네,  
우리는 왜 계단식 논을 복원할까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 간디

㉔ 6월 8일 목요일, 19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키양안 홈스테이)</li> <li>■ 우투폭포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프니 혹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합니다.</li> <li>- 우투폭포까지 트래킹으로 이동합니다. (운동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li> </ul> </li> <li>■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우투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양안 마을사람들이 즐겨 찾는 우투폭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봅니다.</li> </ul> </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우투폭포)</li> <li>■ 키양안으로 이동</li> <li>■ 휴식</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양안에서의 마지막 밤 '모닥불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빛 벗 삼아, 통기타 소리 벗 삼아! 우리들만의 자그마한 축제를 즐깁니다.</li> <li>- 마을주민분들에게 이푸가오 전통춤, 노래를 배워봅니다.</li> </ul> </li> <li>■ 키양안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㉔ 6월 9일 금요일, 20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키앙안 홈스테이)</li> <li>- 그동안 잘 보살펴주신 홈스테이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작별인사를 합니다.</li> <li>■ 하파오 마을로 이동</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바나웨)</li> <li>■ 하파오 마을 도착 ~ 홈스테이 배정</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8: 천연온천 탐방</b></li> <li>- 하파오 마을에 있는 천연온천을 방문합니다. 트래킹하며 하파오 마을의 멋진 계단식 논 풍경을 즐겨봅니다.</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하파오 홈스테이)</li> <li>■ 하파오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Happiness depends upon ourselves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㉔ 6월 10일 토요일, 21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하파오 홈스테이)</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29: '계단식 논' 복원 - 약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푸가오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인 계단식 논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작업에 참여하며, 그들의 삶에 깊게 다가가봅니다.</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하파오)</li> <li>■ 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30: '계단식 논' 복원 - 약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푸가오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인 계단식 논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작업에 참여하며, 그들의 삶에 깊게 다가가봅니다.</li> <li>■ 휴식</li> </ul>	도보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하파오 홈스테이)</li> <li>■ 하파오 홈스테이 숙박</li> </ul>	

▷ M E M O ◁

# 이푸가오에서의 나날들

이푸가오에서 마지막 날



㉔ 6월 11일 일요일, 22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하파오 홈스테이)</li> </ul>	대절차량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파오 ~ 바나워 ~ 바기오</li> <li>- 이동 중 점심식사를 합니다.</li> <li>■ Mountain Lodge 체크인</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바기오 시내)</li> <li>■ 바기오 야시장 탐방</li> <li>- 필리핀 야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이 가득한 바기오 야시장을 방문합니다.</li> <li>■ Mountain Lodge 숙박</li> </ul>	대중교통

▷ M E M O ◁

㉔ 6월 12일 월요일, 23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Mountain Lodge)</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31: 탐아완 예술인 마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예술인들의 마을 1호, 탐아완은 어떤 곳일까요? 마을 곳곳을 거닐며, 산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li> </ul> </li> <li>■ <b>점심식사(바기오 시내)</b></li>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32: 벤캡(Bencab)박물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현대미술의 별 &lt;베네딕토 카블렐라&gt;의 세계를 만나다</li> <li>- 산에서 온 사람들 '이고롯(Igorot)', 특별히 누구에게 배우지도, 학풍이나 파벌이 형성되지도 않은 산악 소수 민족들이 그들의 자연과 식민 시대를 겪으며 화려한 예술 세계를 그대로 엿 볼 수 있습니다.</li> </ul> </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편견을 넘어 가슴 뛰는 필리핀 33: 바기오 시티투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바기오는 외세들의 침입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다. 해방 후 몇 차례 지진을 맞긴 했지만, 필리핀국립대학 바기오캠퍼스, 필리핀 사관학교, 세인트루이스대학 등 많은 학교들이 자리 잡아 교육의 도시로 불리고 있고, 서늘한 날씨를 중심으로 발달된 교통과 행정 등의 기능은 메트로 마닐라 다음의 도시로 손꼽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시를 탈바꿈시켰다. 루손지역에 공급되는 대부분 야채와 과일은 선선한 날씨 탓에 맛이 좋은 바기오 출신이며, 산토 토마스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연환경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발걸음을 바기오로 끌어들이고 있다.</li> </ul> </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Mountain Lodge)</li> <li>■ Mountain Lodge 숙박</li> </ul>	

▷ M E M O ◁



㉔ 6월 13일 화요일, 24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Mountain Lodge)</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기오 자유일정</li> <li>- 조별로 자유롭게 바기오를 여행합니다.</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Mountain Lodge)</li> <li>■ Mountain Lodge 숙박</li> </ul>	

▷ M E M O ◁

㉕ 6월 14일 수요일, 25일차

일 시	내 용	비 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식사(Mountain Lodge)</li> <li>■ 바기오 버스터미널로 이동</li> <li>■ 마닐라로 이동</li> <li>- 버스(10:00)를 타고 이동합니다.</li> </ul>	대중교통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휴식 및 짐 정리</li> </ul>	대절차량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식사(아시안브릿지 필리핀)</li> <li>■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숙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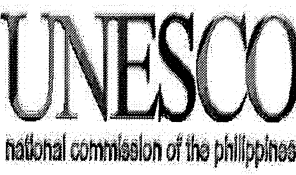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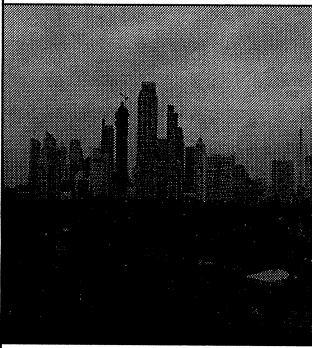
▷ M E M 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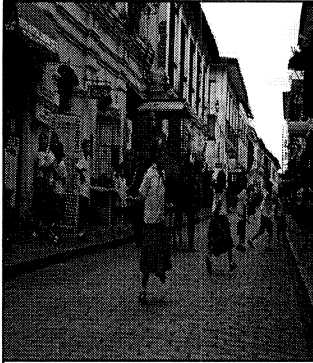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 4. 여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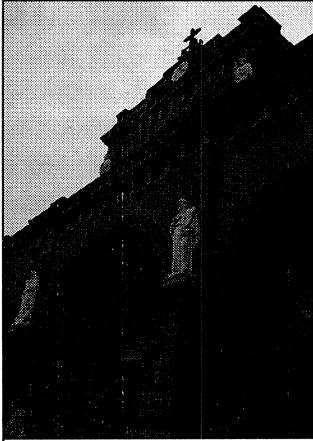
 <p><b>ASIAN BRIDGE PHILIPPINES</b></p>	<p>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지부는 2003년 2월 4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필리핀에 설립한 아시안브릿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업, 청소년,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천명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p> <p>우리는 아시안브릿지에서 필리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경험 많은 아시안브릿지의 스텝 보나와 트윅클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 입니다.</p>
<p>아시안브릿지 필리핀</p>	
 <p><b>UNESCO</b> nation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p>	<p>'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정의 아래 197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프로젝트, 우리는 필리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그들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그 성과와 폐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원사업을 진행할 이 푸가오 지역의 '계단식 논'의 현 상황과 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p> <p>더불어 국제기구의 프로젝트 현지의 이해와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p>
<p>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p>	
	<p>인구 천만을 자랑하는 필리핀의 수도권역 메트로 마닐라. 동남아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며 고층 빌딩들이 군림하는 필리핀의 강남 '마카티', 미국식 거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보니파시오', 화려한 밤거리를 자랑하는 '이스트우드', 메트로폴리탄을 꿈꾸며 탄생한 행정수도 '퀘존', 필리핀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닐라'까지, 복잡하면서도 볼거리가 다양한 메트로 마닐라는 오늘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필리핀으로 끌어들이는 1등 공신입니다.</p> <p>마천루 뒤에 숨어있는 판자촌, 화려한 쇼핑물 뒤에 구걸하는 아이들, 이렇듯 메트로 마닐라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화두를 던져주며 오늘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p>
<p>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p>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는 16세기에 스페인인들에 의해 지어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파시그 강 남쪽에 위치한다. 그 명칭은 직역하면 스페인어로 "벽 안에서"가 되며, 벽에 둘러싸인 도시 또는 요새를 의미하고, 또한 그 두껍고 높은 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스페인 시대에는 인트라무로스가 마닐라 자체라고 생각 되었다. 인트라무로스는 1606년 완성되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스페인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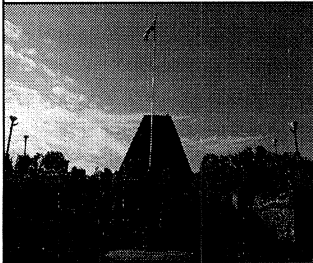
이 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 기간 동안 식민 역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그 곳은 수많은 필리피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슬픈 역사의 중심지로서, 대리석으로 조성된 화려한 거리만큼이나, 그들의 마음 속에 단단하게 각인된 오욕의 장소이다.



**성 어거스틴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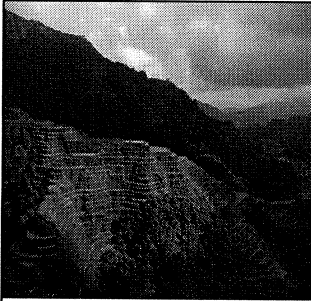
성 어거스틴 성당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스페인 풍으로 설계한 최초의 유럽식 석조건물이다. 마닐라 시의 인트라무로스 내에 위치하며, 스페인의 점령 시대인 1587년에 착공하여 1607년에 완성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이곳만은 남아있었다. 또한 건축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기적의 교회'라고 불린다. 필리핀에 있는 세 개의 다른 교회와 함께 '필리핀의 바로크식 성당'으로 1993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들어와 교회가 필리핀 민중을 억압하는데 이용된 잔인한 역사의 성지를 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일각의 시각이 있지만, 당시 제국주의의 흐름을 온 몸 가득히 기록해 놓은 성 어거스틴을 보존하는 것이 이런 일의 되풀이를 막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전반적인 기류이다.



**키양안(Kiangnan)**

1945년, 세계 2차 대전 말미 무렵 말라야의 호랑이라 불리며 동남아시아 일대를 호령하던 일본의 사령관 야마시타와 돌아온 장군 맥아더의 숨막히던 추격적은 키양안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구릉은 밀리언 달러 힐(Million Dollar Hill)이라 불리는데 일본군을 색출하기 위해 미군이 이 지역에 투하한 폭탄의 양 때문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국주의의 패권싸움에 자기 집 안방을 내줘야 했던 필리피노들, 지금은 이푸가오족이 미군과 함께 일본군을 잡아내고 그들과 후에 협력을 꾀했다는 형태에 자부심에 사로잡혀 필리핀 정부는 이 곳에 전쟁사당과 박물관을 세우고 이제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바나웨(Banaue)**

세계 8대 불가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바나웨는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와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익숙해진 그곳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의 고액권인 1,000페소(약 30,000원)짜리 뒤에 나오는 계단식 논을 볼 수 있고, 이후가오 전통 문화 박물관 및 간단한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제나 저제나 이방인을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산장들은 계단식 논을 배경으로 서 있는 곳, 바나웨를 우리는 방문합니다.



**바기오(Baguio)**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저지대의 더위와 매연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소나무로 뒤덮인 고지대 휴양지가 있기 마련인데 바로 바기오가 필리핀의 대표적인 고지대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산지의 다른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바기오는 필리핀에서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25만명!) 축에 드는 대학도시로 고산족 문화와 저지대 주민 사이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배낭여행자들에게는 북쪽의 사가다, 칼링가 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교통체증이 있는 도심지역만 벗어나면 바기오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쾌적한 지역입니다. 또한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면 작은 도시의 혼란과 나이트라이프, 늘어나는 레스토랑 등이 만들어낸 풍경에 오히려 기분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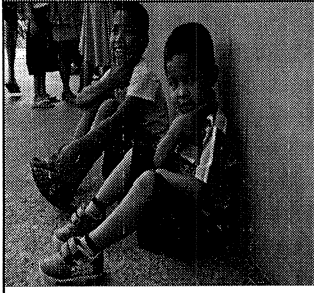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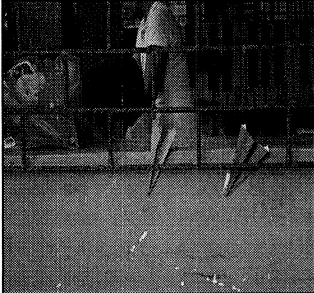


**탐아완 예술인 마을  
(Tam-awan Artist Village)**

바기오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이 예술인 마을에는 해체 및 재건축을 마친 이후가오족의 전통가옥 8채와 팔각형 모양의 희귀한 칼링가 오두막이 2채 들어서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남중국해까지 볼 수 있어 탐아완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탐아완은 필리핀어로 '유리한 고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유명현대예술가 '벤 카브레라'가 이끄는 '차놈 재단'이 코르디에라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 이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차놈 재단'은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발표하는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부회장인 '치트 아시그나시온'씨와 함께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한 역사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바공실랑안(Bagong Silangan)

바공실랑안(BagongSilangan)이라는 이름은, 바공(Bagong)이라는 '새 것(new)'을 뜻하는 형용사와 실랑안(Silangan)이라는 지역 이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1960년 초반까지는 쌀이 주요 재배작물인 풍요로운 농업 지대였지만, 이후 파식 강 지류에 자리 잡은 실랑안이 강의 범람으로 인해 구역정리가 필요하다는 중앙 정부의 판단 아래 재이주지역으로 형성된 곳이다. 이 외에도 비공식 거주민들(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불법 점거자'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강제 재이주시키는 지역으로서 자리 잡으며 바랑가이(Barangay, 부락을 의미하는 지방 자치 단위; 대한민국의 '동'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정도 규모가 커지자 이후 필리핀의 행정 수도인 퀘존 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바공실랑안은 메트로 마닐라 퀘존 시의 2구역에 위치한 바랑가이로,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쓰레기 산으로 유명한 파야타스(Payatas)가 자리하고 있다. 차로 15분 거리에 국회가 있는 등 도심에 입지한 덕택에 흡수 피해나 재난이 발생 시 구호품이 집중되는 지역이며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바공실랑안에는 2009년 기준 약 9만 5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한 개씩만 존재한다. 수많은 가구가 저지대에 거주하는 관계로 폭우가 내릴 시 매번 전염병이 도는 등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재난이 발생 시 학교를 대피소로 사용하여, 월드비전, 국제적십자사 등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대처한다.

#### · 담파(DAMPA)와의 관계

: 담파(DAMPA : Damayan ng Maralitang Pilipinong Api)는 Smokey Mountain을 비롯한 메트로 마닐라 여러 지역의 철거에 대응하여 1995년 12월에 만들어진 풀뿌리 주민조직으로서, 현재 17,774 가구가 그 일원으로 가입했다. 담파는 도시빈민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장려하는 일을 하는데 지방 정부 및 해당 지역의 주민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단체이다.

담파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통의 기본 이슈들을 중심으로 도시빈민지역에서 주민조직을 조직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시도들을 장려하며, 정부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서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친 빈민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루손 점 일부에 59개의 회원 조직이 있다. 이러한 담파의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는 지역이 바로 바공실랑안이다. 특히 청년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이 BSYF(Bagong Silangan Youth Federation, 바공실랑안 청년 모임)를 탄생시켰으며, 10대~20대 사이로 구성된 청년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5. 알아두면 유용한 따갈로그어

### □ 숫자

1- isa / 2- dalawa / 3- tatlo / 4- apat / 5- lima / 6- anim / 7- pito / 8- walo / 9- siyam / 10- sampu

### □ 방향

오른쪽- kanan / 왼쪽- kaliwa / 직진- diretso / 아래- lialim / 위- libabaw / 돌다- ikot

### □ 사람

나- ako / 너- ikaw / 할머니- lola / 할아버지- lolo  
엄마- nanay, mama, mommy / 아빠- tatay, papa, daddy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ate /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kuya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 manang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자- manong  
고모- tita / 삼촌- tito

### □ 형용사

아름답다, 예쁘다- maganda / 잘생겼다- pogi, gwapo / 맛있다- masarap / 못생겼다- pangit

### □ WH 질문

무엇- ano / 언제- kalian / 어디- saan / 왜- bakit / 어떻게- paano / 얼마- magkano / 누구- sino

### □ 대답

네- oo, opo / 아니- hindi / 있다- meron ako / 없다- wala / 아마도- siguro / 진짜?- talaga

### □ 기본 표현

좋은 아침입니다- magandang umaga po. / 좋은 오후입니다- magandang hapon po.  
좋은 저녁입니다- magandang gabi po. / 잘지냈어요?- kumusta po?

### □ 소개

나는 보나입니다- ako ay si bona. / 이름이 무엇입니까?- anong pangalan mo?  
여기에 사나요?- saan ka nakatira? / 몇 살이에요?- ilan taon ka na?

### □ 예절

감사합니다- salamat po. / 천만해요- walang anuman po.

### □ 생활표현

대중교통 수단을 탈 때, 요금이요- bayad po. / 멈춰주세요- para po.

### □ 기타표현

배고파요- gutom na ako. / 배불러요- busog na ako.  
사랑해요- mahal kita. / 좋아요- okay lang ako, ok lang.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수도는 하노이이고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으며,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331,210km<sup>2</sup>로 남한의 3.3배 크기이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길이는 1,650km에 이른다. 행정 구역은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9개의 성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나라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주도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주석은 임기 5년이며,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인구는 약 9천 15만 명(2012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6%인 비엣족과 53개의 소수 민족, 100만여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로, 발음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6성조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어 외에도 소수 민족의 언어 네 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문자 꾸옥 응어는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 사용하던 과거의 문자를, 17세기 말 프랑스의 선교사가 라틴 문자로 적은 것에서 유래하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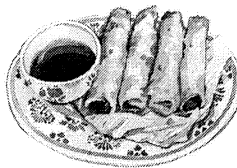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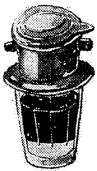
1) [네이버 지식백과] 베트남 - 긴 국토와 농업의 나라 (베트남에서 보물찾기, 2009., 아이세움)

## 2017 베트남 일정

6/18 (일)	6/19 (월)	6/20 (화)	6/21(수)	6/22 (목)
22:45 5J 751 출국	00:20 도착 24:20 호치민 도착 01:30 숙소 도착 11:00 전쟁박물관 13:30 점심식사 14:30 통일궁 15:10 노트르담성당 15:30 조별개인시간 17:30 저녁식사 18:30 벤틀안시장 20:00 숙소 이동	08:00 아침식사  10:00 미토출발 12:00 점심식사 13:00 유니콘 섬 16:30 저녁식사 17:30 호치민 출발 19:30 호치민 도착 20:00 나짱이동	06:00 숙소 도착  보트 투어  저녁식사  19:00 담 시장	08:00 아침식사 10:00 뽀나가 탑 머드 온천 저녁식사  19:54 다낭 출발
6/23 (금)	6/24 (토)	6/25 (일)	6/26 (월)	6/27 (화)
06:07 다낭 도착 07:00 숙소 체크인 12:30 한 시장 점심식사 자유시간 17:00 18:00 저녁식사	09:00 아침식사 10:00 다낭 대성당 11:00 콩 카페 롯데마트 12:00 점심식사 13:30 미케비치 8M 16:30 숙소 20M 18:00 저녁식사	08:00 아침식사 09:00 후에 이동 12:00 숙소 체크인 13:30 후에 왕궁 18:00 저녁식사	08:00아침식사(숙소)  10:00 시내구경 자유시간  12:00 점심식사 21:00 하노이 이동	12:33 하노이 도착 13:00 숙소 체크인  자유 시간  17:00 저녁식사 20:00 야시장 21:00 휴식
6/28 (수)	6/29 (목)	6/30 (금)	7/1 (토)	
08:00 아침식사 09:00 호치민묘 원주탑 호치민 관저 바딘광장 12:30 점심식사 13:30 탕롱 군사박물관 레닌광장 국립미술관 문묘 18:00 저녁식사 19:00 휴식	09:00 아침식사 11:00 호아루수용소 판사사 12:30 점심식사 14:00 호안끼엠호수 17:00 응옥선 사당 18:00 동쑤언시장 18:30 저녁식사 쇼핑, 구거리 20:00 숙소 이동 자유시간	08:00 체크 아웃 아침식사 - 공항 12:20 OZ 728 하노이 - 인천 18:25 도착	집으로 입교 7/9(일)	

## 식 단

	아침	점심	저녁
6월 19일	조식	Sadec Quán	Phở 2000
6월 20일	조식	메콩 강 투어 제공	Pho Hung
6월 21일	Cafe des Amis	보트 투어 제공	담 시장
6월 22일	조식	Banh can Co Tu	Bún Cá Sứa
6월 23일	쌀국수	꼰 시장	미짱
6월 24일	반미 & 음료수	Mr. Duc's Restaurant	해산물
6월 25일	다낭 숙소 근처	후에 숙소 근처	채식 식당
6월 26일	조식	Mr. Pho	
6월 27일	반미25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야시장
6월 28일	만들어 먹기 #라면	쏘이엔 #찰밥	분짜닥 킴 #분짜
6월 29일	만들어 먹기 #브런치	포10 #쌀국수	동쑤언 시장 #조별식사
6월 30일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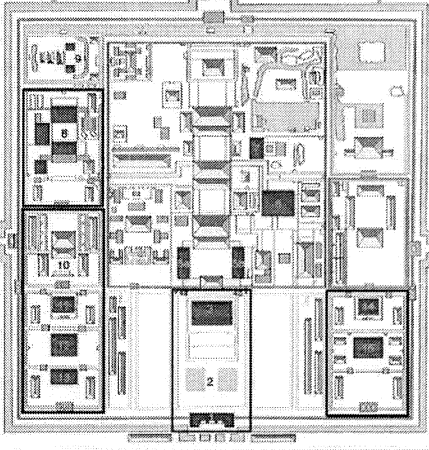


## 세부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6/19 1일차	22:45 00:20	[출국] 마닐라 국제공항 출발 → 호치민 도착 (세부항공 SJ 751편)
	00:20 01:30	[이동] 호치민 공항 → 숙소 (갤럭시 호텔)
		[아침]
	11:00	전쟁 박물관 *베트남 전쟁당시 미국 정보부 건물이 있던 곳에 세워진 박물관.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탱크,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와 전쟁 자료들을 전시한다. 1995년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으로 불렸다. 1992년 수교 후에 한국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제거 되었다.
	13:30	[점심] Sadeç Quán
	14:30	통일궁 ♦ 남베트남 정권 시대의 대통령 관저다. 탱크가 이 안으로 진입해 베트남 전쟁이 종전된 역사적 장소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대통령 궁, 독립 궁으로 불리다가 베트남 통일 이후 통일 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5:10	노트르담 성당 ♦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가톨릭 교회다.
	15:30	조별 개인 시간
	17:30	[저녁] Phở 2000
	18:30	벤탄시장 ♦ 1914년에 프랑스인들이 이곳에 시장을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호치민의 대표 시장이다.
20:00	[이동] 벤탄 시장 → 숙소 (갤럭시)	
6/20 2일차		[아침] 호텔朝食
	하루 종일	미토 메콩강 투어 ♦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라오스·타이·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 수상시장도 있고 배도 탈 수 있는 곳
		[저녁] Pho Hung
		[이동] 호치민 → 나짱 (밤 버스)
6/21 3일차		[체크인]
		[아침] 맥도날드

	하루	신카페 보트투어
	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짱의 바다는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린다.</li> </ul>
		[저녁] 특식_한식당
		담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 시장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구분된다. 실내는 의류점이 주로 있고, 실외는 각종 생필품과 먹거리 노점이 즐비하다.</li> </ul>
		[이동] 담시장 → 숙소 (ccasa hotel)
6/22 4일차	08:00	[아침]朝食
		뽀 나가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힌두교를 믿었던 참파왕국에서 건설한 유적. 팔을 10개 가진 여신 뽀 나가의 신상을 볼 수 있다.</li> </ul>
		탐바 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머드온천과 스파가 있는 몸이 백옥 같아 질 수 있는 곳이다.</li> </ul>
		[점심]
		[저녁]
	19:54 06:07	[이동] 나짱 → 다낭 (밤 기차)
6/23 5일차		[이동] 다낭 기차역 → 숙소
	07:00	[체크인] Gia loi hotel
		[아침] 쌀국수
		[휴식]
	12:30	꼰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현지인들의 부엌이 되는 곳으로, 현지인들의 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가격은 무조건 3분의 1)</li> </ul>
		[점심] 시장에서 해결
		[자유시간]
	[저녁] 미짱 (비빔국수)	
6/24 6일차		[아침] 반미 / 음료수
	10:00	다낭 대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인 1923년 당시의 프랑스 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70M 높이의 천주교 성당이다. 때문에 지붕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닭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데 이를 보고 '수탉교회'라고도 부른다. 오랜 시간 전쟁을 겪어온 베트남의 역사와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다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처음 세워진 후 총 3번의 보수작업을 통해 지금의 대성당이 완공되었다.</li> </ul>

	11:00	<p>콩 카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기서 '콩' 혹은 '공'은 비엣공. 즉 베트남 공산당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빈티지스럽게 꾸민 카페이다. 1층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커다란 바이다. 카페라고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맥주와 각 테일도 판매하고 있다./ 2층은 귀여운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놓여있고, 예쁜 거실을 떠올리게 하는 편안한 공간이다.</li> </ul>
		[점심] 다낭 대성당 근처
		<p>한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액세서리, 기념품, 패션 잡화 등을 주로 판매한다. 1층은 식자재/2층은 90년대 동대문 시장 같은 느낌으로 주로 의류와 신발을 많이 판다./ 3층은 주로 아오자이나 이브닝드레스를 파는 곳이 많다.</li> <li>미케비치에서 먹을 간식 사기</li> </ul>
	13:30	<p>미케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BC에서 선정한 세계 6대 바다로 일몰이 예쁘다.</li> </ul>
	18:00	[저녁] 특식_해산물
6/25 7일자		[이동] 미케비치 → 숙소 (Gia loi hotel)
		[아침] 숙소 근처
		[이동] 다낭 → 후에
	12:00	[체크인] (Thanh An 3 Guesthouse)
		[점심] 후에 숙소 근처
	13:30	<p>응우옌왕조왕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에왕궁은 150년의 역사를 지닌 응우옌 왕조가 살았던 왕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현재는 대부분이 복원 된 것들이다. 프랑수아령 시대의 베트남은 3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응우옌 왕조는 그중 안남(安南)의 왕조정부로서 존속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베트남독립동맹(베트민)의 8월혁명 때 제13대 바오다이제(帝)의 퇴위 선언으로 완전히 몰락하였다. 응우옌 왕조는 베트남의 최후 통일 왕조이자 최대의 왕조이며, 후회에 수도를 건설했다.</li> <li>한가운데의 문은 황제만이 출입할 수 있고, 좌우의 문은 관료들이, 제일 끝의 옆으로 난 등근 아치문은 동물과 하인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여 중앙의 문은 언제나 닫혀있다고 한다. 양쪽 두 개의 문 중에서 왼쪽 문은 외국인인, 오른쪽 문은 베트남 사람이 사용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활성 지역 구역별 기능 구분 및 현존 건물명</b></p> 	<p>핵심 지역 : 활성 주요 의례 행사 지역</p> <p>(1) 종오문(正五門, Môn, 午門)  (2) 중도교(中道橋, Cao, 中道橋)  (3) 태화전(泰和殿, Thái Hòa Điện, 太和殿)</p> <p>북쪽의 지역 : 자음성(紫雲城, Tu Cam Thanh)  (5a) 좌우(左庑, Ta Vu)  (5b) 우우(右庑, Hâu Vu)  (6) 월서당(閱書堂, Duyệt Thị Đường)  (7) 태평루(太平樓, Thái Bình Lâu)</p> <p>중앙 지역 : 태후, 황태후 거주 지역  (8) 연수궁(延壽宮, Cuse Diên Thọ)</p> <p>남쪽 (노랑색) 지역 : 왕실 정원:  (9) 장생궁(長生宮, Cung Trường Sinh)</p> <p>황색 지역: 제례 지역  (10) 봉선전(奉先殿, Phung Tiên Điện)  (11) 홍묘(興廟, Hưng Miếu)  (12) 세묘(世廟, Thế Miếu)  또는 세조묘(世宗廟, Thế Tổ Miếu)  (13) 현암각(顯巖閣, Hiền Lâm Các)  (14) 조묘(郊廟, Triều Miếu)  (15) 태묘(太廟, Thái Miếu)</p> <p>북방의 지역: 육조동 행정 지역</p>
		<p>황색 지역은 현존하는 건물, 기타 지역은 사라졌거나 손상이 심한 부분</p>	
		[저녁] 특식-왕궁 근처 채식식당	
		[아침] 왕궁 → 숙소 (Thanh An 3 Guesthouse)	
6/26 8일차		[아침]朝食	
	11:00	[체크아웃]	
		[점심] 숙소 근처	
	오후	민망왕릉 (Minh Mang Tomb) 한국어학과	
		[저녁] 한국어 학과	
	9:30	후에 → 하노이	
6/27 9일차		11:50 [도착] 후에 → 하노이	
		[체크인] 만동게스트하우스	
		[휴식 및 자유시간]	
	17:00	[저녁]	
		야시장	
6/28 10일차		[아침] 만들어먹기 (라면)	
	오전	호찌민 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찌민 묘는 1975년 베트남의 건국 기념일에 맞춰 건축 되었다. 안에는 실제로 호찌민의 유체가 밀랍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li> </ul> <p>원주 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보 1호. 연못 위에 있는 작은 신당 같은 곳이다.</li> </ul> <p>호찌민 관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찌민이 1954년부터 1969년까지 살았던 곳이다.</li> </ul> <p>바딘 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9월 2일 호찌민은 바딘광장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li> </ul>
	[점심] 찻밥
	<p>탕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노이에 있는 왕궁이다. 프랑스 통치 시대에는 1887년부터 1954년까지 식민지 기간에 하노이를 행정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후에 베트남 왕조들은 하노이에 수도를 두었다.</li> </ul> <p>군사 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6년 7월 17일에 개관한 박물관이다.</li> </ul> <p>레닌 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의 산물인 레닌동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li> </ul> <p>국립 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식민시기 당시 공보부 청사로서 현대 작가의 그림, 조각, 칠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li> </ul> <p>문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졌으면 1076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유학자를 양성하였다.</li> </ul>
	18:00 [저녁] 분짜
	19:00 [휴식]
6/29 11일차	<p>[아침] 만들어먹기 (브런치)</p> <p>오전</p> <p>호아루 수용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노이에 있는 교도소이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 정부가 항부 투쟁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던 장소였다.</li> </ul>

		<p>관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노이의 있는 절이다. 베트남 왕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해 15세기에 지어졌다가 불탑을 지으면서 사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 불교 연합의 본부이다.</li> </ul>
		[점심] 쌀국수
	14:00	<p>호안끼엠 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안끼엠에 있는 호수이다. 하노이의 주요 명광 중 하나다.</li> </ul>
	17:00	<p>응옥선 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안끼엠 호수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에 지어져 있는 사당이다</li> </ul>
	18:00	<p>동쑤언 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인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해산물, 야채, 과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길거리 음식도 맛 볼 수 있다.</li> </ul>
	18:30	[저녁] 특식_조끼리 (쇼핑, 구경)
	20:00	[이동] 동쑤언 시장 → 숙소
6/30 12일차		[이동] 숙소 → 공항
		[아침] 공항
	12:20	[이동] 하노이 → 인천 (아시아나항공 OZ 728편)

## 숙소 정보

### 호치민(Hồ Chí Minh)

1) 기간: 6월 18일 - 6월 20일

Galaxy Hotel & Capsule (갤럭시 호텔 & 캡슐)

2) 주소

269/19, Đề Thám, Phạm Ngũ Lão, Quận 1, Hồ Chí Mi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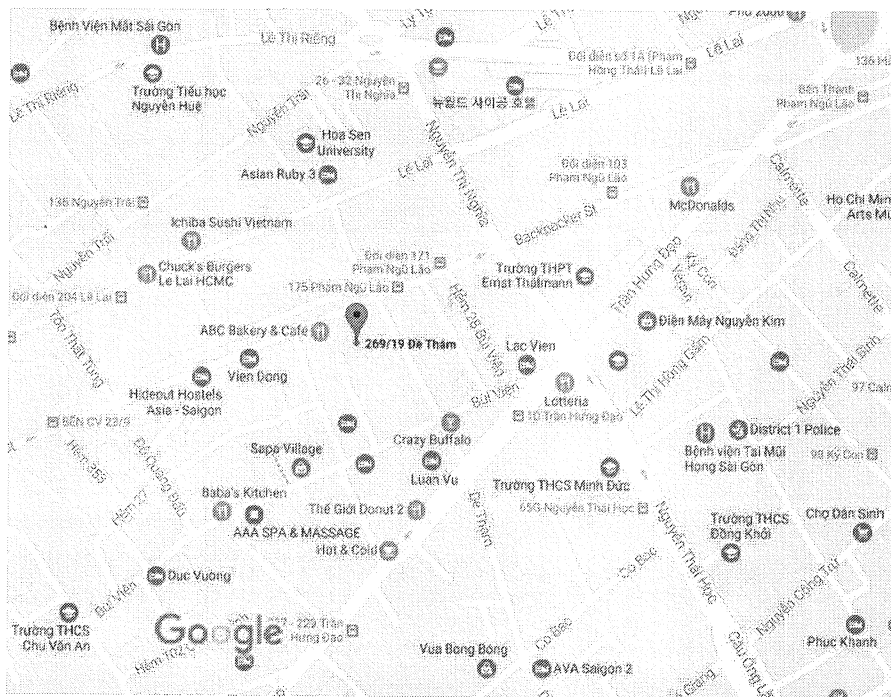
269/19 De Tham, District 1

3) 연락처

Hotline: +84-936693333

Phone: +84-8-38386995

Email: galaxyhotelvn96@gmail.com





## 다낭(Dà Nẵng)

1) 기간: 6월 23일 - 6월 25일 (다낭)

Gialoi Hotel(지아로이호텔) Khách Sạn Gia Lợi<sup>3)</sup>

2) 주소

492 Kinh Dương Vương, Hòa Minh, Liên Chiểu, Đà Nẵng

492 Kinh Duong Vuong, Lien Chieu District, Da N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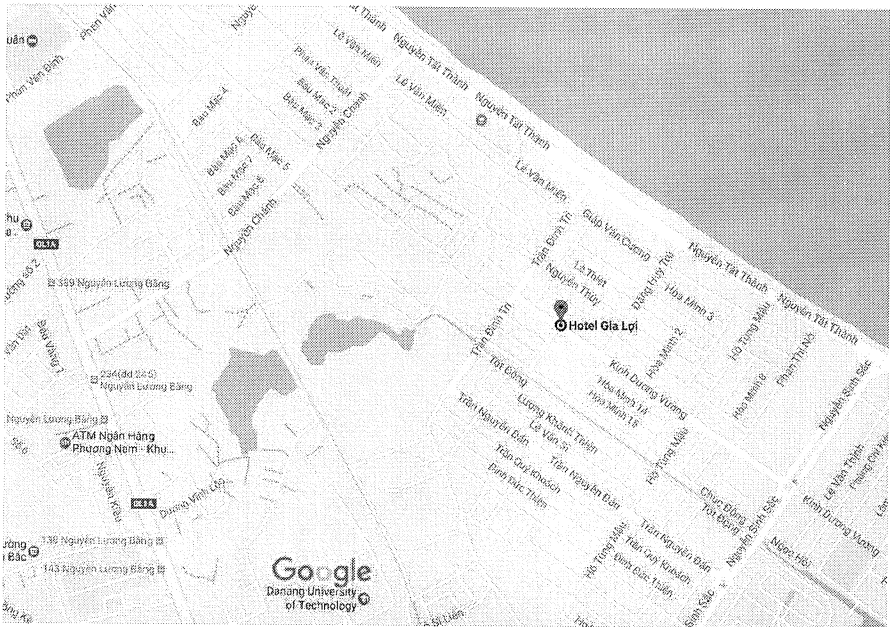
3) 연락처 0913436323, +84 91 343 63 23

<https://gialoihotel.wordpress.com>

facebook: @gialoihotel

체크인 12:00이후 / 체크아웃 12:00이전

- ★ 체크인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예상 도착 시간을 미리 알린다.  
(예약 시 별도 요청 란에 기재 또는 예약 확인서에 기재된 숙소 연락처로 직접 연락.)



3) Khách Sạn = hotel

## 후에(Huế)

1) 기간: 6월 25일 - 6월 26일

Thanh An 3 Guesthouse

2) 주소

46/48 Ngô Quyền, Tp. Hu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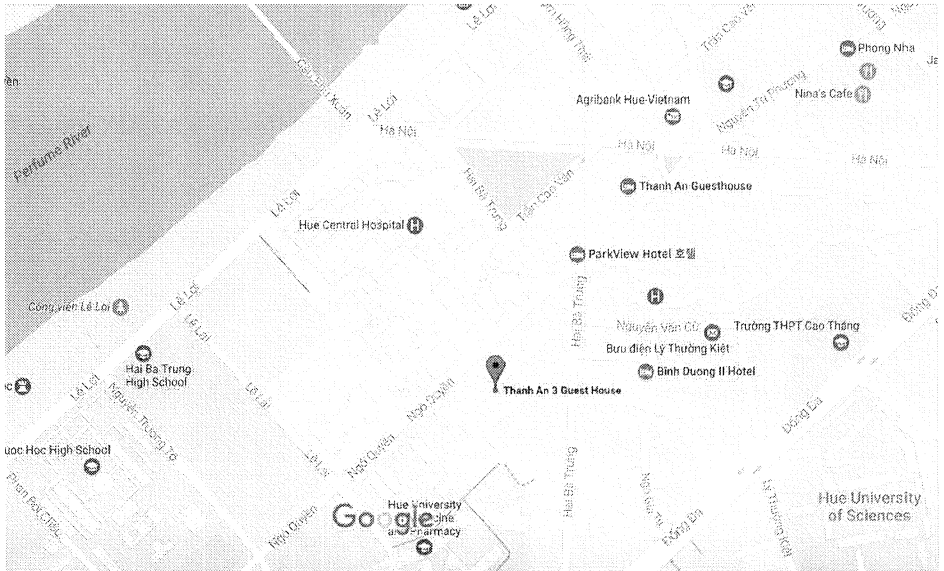
46/48 Ngo Quyen, Hue

3) 연락처

+84 167 254 8077

체크인 12:30~18:30 / 체크아웃 08:30~12:00

★ 현금 결제만 가능



## 하노이(Hà Nội)

1) 기간: 6월 27일 - 6월 30일

Manh Dung Guesthouse (만 등 게스트하우스)

2)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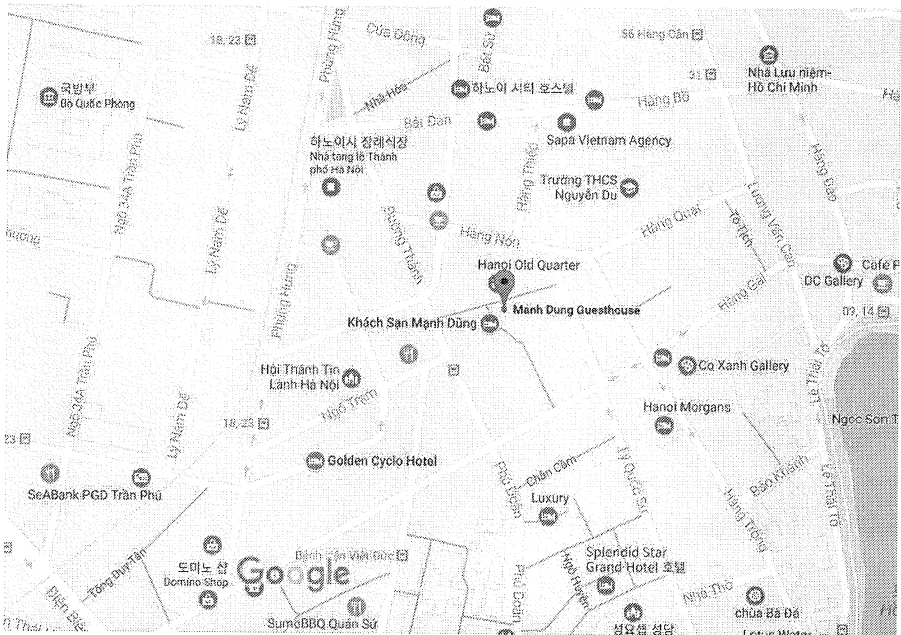
2 Tam Thuong Alley Way, Hoan Kiem District, Hanoi City

2 Ngõ Tam Thương, Cửa Đông, Hoàn Kiếm, Hà Nội

3) 연락처

Hotline: +84.1243.911.911

Office: +84.4.38.267.201



## 언 어

안녕하세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짜오 엠락 부이 드억 감 엠)

감사합니다 (깜언)

미안합니다 (신로이)

예 (양/야) #야는 어른에게

(호치민-야 하오이-양)

아니요 (콩)

이건 뭐예요 (까이 나이 라 까이 지?)

이건 얼마예요 (까이 나이 바오 니우)

할인돼요 (꼬남 냐 콩)

비싸요 (닷 꾸어)

좀 깎아주세요 (남 냐 조 토이)

이거 비싸요 (까이 나이 닷 꾸어)

물 주세요 (조 토이 늑)

아프다 (다우)

배 (붕)

열이 있어요 (비 슷)

내 이름은 ~~입니다 (토이 뎀라 ~~)

잘 먹겠습니다 (깜엉 꺱 세아앙엉)

잘 먹었습니다 (깜엉 꺱 앙 성거이)

화장실 (냐 베신)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냐 베신 아우라우)

어디있어요 (아우라우)

## 베트남 숫자

1(똥)	2(하이)	3(바)	4(본)	5(남)
6(사우)	7(바이)	8(람)	9(뀐)	10(므이)



## 물 가

### 1) 기준 환율(2017.5.8.기준)

100 VND = 4,98 원

Tip. 동(VND)에서 0을 하나 빼고 2로 나눈 게 한국 돈. 10,000동(VND)은 한국 돈으로 500원.  
50,000동=2,500원 이런 식!

### 2) 베트남의 전체적인 물가와 흥정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보다 반값 정도 싸다. 수입품은 한국과 비슷하다. 북부(호이안 부터)가 남부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건 흥정을 잘 해야 한다. 정말 잘해야 한다. 흥정이 다 인 듯 잘해야 한다. 그냥 계속 해야 한다. 과일은 한국에 비해 많이 싸니까 다들 많이 먹고 오시길 그래도 흥정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 3) 호치민

물가가 아주 싸지는 않다. 길거리 음식은 저렴한 편이고 갖춰져 있는 식당은 조금 더 비싸다. 벵탄 시장에서 무조건 50%이상 깎고 들어가야 한다.

### 4) 나트람(나짱)

호치민 보다 깨끗하고 물가가 싸다. 닭 시장에서 역시나 반값 흥정에 들어가야 한다. 관광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따로 있을 것이다. 많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닐 테지만 가격을 깎아라.

### 5) 다낭

휴양지로 많이 찾아오게 되어 물가가 그리 싸진 않다. 롯데마트는 한국 롯데마트보다 훨씬 싸다. 미케 비치 물가 비쌘

### 6) 후에

알아본 바로는 물가는 싼 편

### 7) 하노이

수도이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지역 중에는 물가 차이가 높다.

## 비상 연락망

양정호 선생님 :

송민혜 선생님 :

장경재 조 :

최유경 조 :

유한울 조 : (류소정)

전하진 조 : (이창범)

범죄 신고 : 113

베트남 한국 대사관

주소: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베트남에서 걸 때: 04) 3831-5110~6

한국 또는 해외에서 걸 때: +84-4) 3831-5110~6

베트남에서 전화: (휴대폰) 090-402-6126 / 090-320-6566 (근무시간외 비상연락(당직) 전화)]

## 6.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일부 발췌)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큰딸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메일로 학급통신을 보내주십니다. 아주 멋진 선생님이시죠. 그 중에 너무나도 감동했던 글이 있어 여러분께도 보내려 합니다. 좀 길지만 양해해 주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 하루가 설레었나요?  
오늘 밤, 눈을 감으며 당신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낄 것 같나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그 어디보다도 소중한다고 생각되나요?

선뜻,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 메일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변이 조금 달라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이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2명이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를 8명은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6명은 스페인어를 6명은 러시아어를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1년 동안 마을에서는 1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기가 새로이 태어나므로 마을 사람은 내년에는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메일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생각해서 이 메일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을 뿐 아니라 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지금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풀어놓은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맛을 깊이 음미하며 노래를 부르세요.

신나게 맘껏 춤을 추세요.

하루하루를 정성스레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먼저 당신이 사랑하세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 **작품 해설 | 이케다 가요코**

현대의 동화인 인터넷 민화가 말하는 것은 '희망'이다.

### **글로벌 시대의 민화, 인터넷 이야기 '네트로어'**

혹시 이런 e메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세계가 인구 100명의 마을로 축소된다면.....'으로  
시작되는 '세계 마을'(Global village)이라는 e메일을.

2001년 6월, 칸 광고축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아래 카피도 이 메일의 내용을 인용할 정도로 지금 세  
계적인 화두입니다.

만일 세계의 인구가 100명뿐이라면..... 20명이 전세계 부의 90%를 장악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보다 화장품을 사는 데 40배의 돈을 들이는 동안, 15명은 굶주림에 쓰러져가고 있어요. 교육보다 무기를 만드는 데 10배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으며 16명은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20명은 집에 1대 이상의 TV를 가지고 있지만 17명은 집조차 없습니다. 이 20명은 자신들이 가진 부의 단 0.2%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첫 세대입니다.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당신이 그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네덜란드에서 방영된 어느 TV광고 중에서

지구촌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는 인터넷 통신망이 모세혈관처럼 깔려 있는 지금, 현실을 빚댄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현대의 풍문, 도시의 전설 마냥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밀하게는 인터넷 이야기(민화), 네트러오라고 하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 1월 무렵부터 지금까지 '만약 세계가.....'라는 제목으로 이 메일이 전송에 전송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유리병 속의 편지'가 되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또 다른 너에게로 한없이 한없이.....

그 내용을 다듬어 아래에 실어 두겠습니다.

만약 현재의 인구 통계비율을 그대로 반영해

지구를 1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로 축소하면다면 어떻게 될까요?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서반구(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

52명은 여자

48명은 남자

70명은 유색인종

30명은 백인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6명은 전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6명은 모두 미국인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  
50명은 영양부족  
1명은 빈사 상태  
1명은 지금 태어나려 하고 있고

1명(겨우 단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만약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독, 고문으로 인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의 상류 500만 명 중 한 사람인 셈입니다.

만약 고통, 체포, 고문,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의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행운아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시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에서마저도 아주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고개를 들고 얼굴에 웃음을 띄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생각하여 누군가 이 글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축복은 두 배나 되는 셈입니다.

-작자 미상

\* 본문 속의 통계는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M. 하터(Philip M. Harter)박사가 정리했다고 나와 있으나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 e메일의 탄생과 그 여로

그럼, 이 흥미로운 메일 신드롬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2001년 4월, 그러니까 이 메일이 한창 세상을 돌던 즈음—물론 우리 한국에서도요—영국의 데이비드 타우브(David Taub)씨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세계 마을의 원자자와 뒷이야기'라는 에세이를 발표해, 이 메시지의 원자자로 미국의 환경학자인 도넬라 메도스(Donella Meadows: 1941~2001) 박사를 지목한 것이죠. 그녀의 신문 칼럼을 덧붙여 소개하면서요. 여기서 잠깐, 이 신문 칼럼(1990. 5. 31)에 실린 원문과 네트러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 원문

하나. 제목은 '세계 마을의 현황 보고'이며, 첫행이 '만일 세계가 1,000명의 마을이라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마을 사람들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584명은 아시아인/ 123명은 아프리카인/ 95명은 동서 유럽인/ 55명은 소련(옛 소련이 해체되기 전)' 등과 같이 수치가 훨씬 상세합니다.

둘. 원문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문제, 세계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네트러어에는 없는 문구들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비료의 83%를 40%의 농지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아주 잘 사는 270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잉비료는 호수나 우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7%의 비료를 뿌리는 나머지 60%의 토지에서는 전체 28%의 곡물이 재배되고, 73%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내기도 남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 10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명의 사람들은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이 자칫 정신을 떼내 팔거나 기계를 잘못 조작해 핵무기를 발사해 버리지는 않을까, 가령 그들이 핵무기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해도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을 마을 어디에다 처분할까 등을 매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셋, 연령 구성과 출산율, 사망률 항목은 네트로어에도 있지만 사인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의 3분의 1(330명)은 어린이입니다. 그 중 절반은 홍역이나 소아마비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60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기혼여성 가운데 피임약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됩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28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매년 10명이 죽습니다. 그 중 3명은 굶어서 죽고,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2명은 태어난 지 1년도 되기 전에 죽습니다. 1명은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 • 네트로어

하나. '이 100명 가운데/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와 같이 숫자가 1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1,000보다는 100이라는 숫자를 더 자주 접하다 보니, 쉽게 와닿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둘. 전체적으로 부의 편중에 관한 문구들이 많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듯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애, 동성애, 대학진학률과 컴퓨터 등입니다.

*'6명은 전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6명은 모두 미국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1명(겨우 단 한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구에는 원문에 없던 새로운 말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행운아'와 같이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재확인하고 한껏 행복에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이죠. 이를 거꾸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사람들이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고여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 마을'버전의 e메일은 처음 북미 지역의 네티즌들이 주고받기 시작했나 봅니다. '우정주간'(Friendship) 기간에 말예요. 우정주간은 날짜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캠페인 기간으로, 친구가 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우정에 관한 미담이나 교훈을 담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요.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 고백을 하듯이.....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시대의 통신수단을

타고 이 메일이 전세계로 퍼지는 것이겠죠? 받고 보내고, 다시 받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떤 이는 자신의 감상을 한껏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메시지 속에 살짝 집어 넣기도 했겠지요.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낸다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없이 감상에 젖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손으로 쓴 편지와 달리 메일은 고치기도 쉽고 그 흔적도 전혀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이 메시지는 어느새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으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책의 탄생

그리고 이 메시지는 특히 일본 사회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듯합니다. 모국인 미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바로 '학급통신'이라는 아래 문장의 이야기가 덧붙여진 탓이지요.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큰딸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메일로 학급통신을 보내주십니다. 아주 멋진 선생님이시죠. 그 중에 너무나도 감동했던 글이 있어 여러분께 보내려 합니다. 좀 길지만 양해해 주세요.'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일본 사회에서 '과연 이런 멋진 선생님이 있을까? 모두들 바람에 실려다니는 허구일 것'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선생님'은 실존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 전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멋진 선생님은 이쿠이나 이사무 선생님(치바현 이치하라시 고이중학교)으로 밝혀졌다. 메일명이 '테지사무'이고 날짜는 2001년 9월 25일이다. 같은 달 29일, 이 메일에 '우리 큰딸 아이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이라는 문장을 앞에 붙여 어떤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사람은 토키다 타카코 씨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2001년 9월 무렵 누군가가 '학급통신'버전의 e메일을 독문학 번역가이자 전승문에 연구가인 이케다가요코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케다 씨가 인터넷 시어로 다듬고, 예쁜 그림을 붙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페이퍼 북과 디지털 북의 묘미를 최대한 함께 살린 것이지요. 본문 속의 통계는 취재원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와 더욱 가까운 수치로 수정했습니다.

이케다 씨는 "네트로어가 문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동화는 희망을 말한다.'고 독일의 사상가 에른스트 블로흐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동화인 네트로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희망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계 마을'이 날개 달고 전세계를 떠든 것이겠지요. 예측불허인 우리의 삶, 사람들은 이 네트러어 안에서 '행복한 나'를 깨닫고, 내 친구

도 '그런 행복한 자신'을 찾길 바라며 누군가에게 이 메일을 보내고 또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 공존'을 염원하면서 말예요.

'너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내'가 아닌 '본문 속의 통계 수치에 준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나'를 깨닫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지구 저편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까를. 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살아 있다는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도.

이는 곧 불의(Injustice)를 벗어던지고 정의(Justice)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몸짓이며,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의 나를 포함한 모두를 사랑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예언일 것입니다. 아니면 경고일지도!"

- 도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중 일부 발췌

## 7. 착한 커피와 공정무역 이야기

아니, 커피가 착하다니, 참 별난 일도 다 있네. 도대체 '착한 커피'가 뭐지?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자주 마시는 커피의 원료, 즉 원두는 동티모르, 네팔, 히말라야, 에티오피아, 우간다, 콜롬비아, 브라질, 쿠바, 페루 같은 지역에서 난다.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농민이 1킬로그램의 원두를 팔고 손에 쥐는 돈은 100원 안팎이래. 하루 종일 일하고도 고작 1~2달러를 벌어. 그런데, 웃기게도 런던이나 뉴욕 등 선진국에서 팔리는 커피의 소비자 가격은 생산자가 받는 것의 200배에 가까워 흠. 뭔가 이상하지 않나?

요약하자면,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잘사는 나라의 소비자는 편안하게 즐기며 유통업자는 대량 판매로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지. 한마디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게 바로 '착한 커피'야.

'착한 커피'란 소비자들이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들과 연결하여 커피 원두를 적정가격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유통마진을 없애는 대신 가난한 나라의 유기농 커피 생산자들이 좀 더 잘살도록 도울 수 있지.

그런데 이젠 커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코코아나 차, 바나나, 망고, 설탕, 올리브유, 옷, 축구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움직임을 국제무역 차원에서는 '공정무역' 운동이라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라고 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윤리적 소비'란 실사 좀 비싸더라도. 또 좀 귀찮더라도 기존 습관에서 벗어나 보다 건전한 소비를 하자는 거야.

예컨대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용품이나, 현지 소작농한테 헐값에 원두를 사오는 커피 체인점 등을 피하는 일이 그런 것이지. 또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대형 마트 대신 가까운 동네 가게를 이용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산물을 먹는 일, 유전자변형 식품 GMO를 거부하고 되도록 재활용품과 중고품을 쓰는 일도 하나의 윤리적 소비이지.

여기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제3세계 후진국 생산자들이 만든 좋은 물품을 제값에 직거래함으로써 원조 대신 정의로운 거래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지. 그래서 제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삶의 희망을 주려는 거야.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데이비드 랜섬 교수가 말하듯 "기존의 무역은 사람이 없는 무역이지만, 공정무역은 그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는 것." 이라 할 수 있지.

재미있게도 '착한 커피' 바람이 불어 대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이런 윤리적 소비 운동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어.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벅스는 2000년부터 커피 원두를 시장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전체 물량의 30%를 커피재배 농민들과 직거래로 조달하는 식으로 공정 무역에 동참하고 있지. 2006년에만도 자그마치 1800만 파운드의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했대. 이는 스타벅스가 2006년에 구매한 커피 원두의 6%에 해당하는 양이래.

그런데 스타벅스만 윤리적 소비 운동, 즉 공정무역에 동참한 게 아니래. 네슬레나 미쓰비시 등도 소비자들의 지속적 압력에 손을 들었다는 군. 그래야 자기들도 공정무역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 관리가 되거든. 흠, 재밌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기업의 행위를 바꿀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군.

### **공정무역을 하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좋지?**

'착한 커피' 운동처럼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 소비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 그냥 아무 거나 값싼 거를 마시면 되지. 왜 굳이 값이 더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는 걸까? 돈 벌기도 힘든데 비싼 돈 주고 착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혹시 바보가 아닐까? 내가 착한 커피를 마시는 것과 저 먼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일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지금도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데서 노숙하는 사람들 도우면 되지, 뭐 하러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 자신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셈이야. 어디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

첫째, 아까 말한 대로 공정무역에 동참하면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셈이지. 선진국에서 후진국들 원조를 하거나 수출품을 사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민과 같은 직접생산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게다가 힘센 선진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난한 생산자들이 경쟁적으로 원료와 상품, 노동력을 헐값에 넘겨야 하니 계속 손해를 보게 되거든. 그만큼 더 벌기 위해 그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결국 이들은 일을 계속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돼.

이렇게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지는 마당에 공정무역 같은 걸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은 '정의의 경제'를 실천하는 거야. 둘째,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농민들도 누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지 알게 되니까 함부로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도 마구잡이로 쓰지 않아. 그래서 생산자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도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게다가 소비자들도 공정무역 물품을 쓰면서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철학까지 함께 나눈다는 자부심을 가져 기분도 좋아지지. 이렇게 공정무역이 이뤄지면 '건강의 경제'가 실현되는 셈이야.

셋째, 또 만약 커피나 올리브유 같은 농산물, 그리고 옷이나 카펫, 축구공과 같은 공산품의 국제 거래를 그냥 '자유 시장'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기업가가 경쟁이 치열한 '자유 시장'에서 자기 상품을 더 많이 팔아 큰 이윤을 남기려면 상품 가격을 최대한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 그러려면 기업은 원료나 노동력을 더 싸게 구입해야지. 이 과정에서 흔히 자연 생태계 훼손이나 아동 노동 문제,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농민, 노동자, 어린이, 자연 등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공정무역이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살리고 참된 관계를 맺는 '연대의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얼마 전,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런 공정무역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지. 거기에는 세 개의 사례가 등장해. 예컨대, 프랑스의 제조사 '베자', 태국의 자스민쌀 생산조합, 네팔의 카펫 제조사 '포메이션 카펫' 등이 그런 모범 사례란다.

여기서는 폭리를 취하는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생산자와 공정무역조합이 직접 거래하지. 이렇게 하면 생산품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직접 생산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직접생산자 입장에서는 적정가격을 받고 생산량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농민들은 유기농 경작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쉬워. 농민 건강도 지키고,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요컨대, 이 커다란 세상에서 '나 하나'가 작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이웃과 지구를 살리고 기업도 바꿀 수 있는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해소에 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정무역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인 거지.

### **공정무역은 언제 시작했으며 현재 실태는 어떠한가?**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지?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라.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어. 그리고 전 세계 농약의 80%가 후진국인 제 3세계에서 사용되며, 농약 중독 사고의 99%가 제3세계에서 일어난대.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란 거야. 대부분은 우리들 시골할머니처럼 순박하고 부지런하지.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의 제3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독립 이후 자유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또 그런 구

조 속에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이 없이 외형만 커졌던 탓이기도 하고.

특히 기존의 농촌공동체나 마을, 지역사회가 가진 인간적, 자연적 유대의 끈들이 갈수록 해체되면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물론 극소수의 약삭빠른 이들은 강대국에 빌붙거나 경제 원조, 경제 개발 따위로 잘살게 되었지만, 대부분 풀뿌리 민중은 제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 거야.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4만 불이고, 한국은 2만 불 수준이지만, 제3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불, 200불 수준이 많아. 부지런히 일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지. 물론 꼭 소득이 높아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식의주 등 기본 살림살이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어야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 운동이야.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는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무역을 탄생시킨 것이지. 처음엔 1950년대 유럽에서 태동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널리 번져나가고 있어.

공정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사우전드빌리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제3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 됐다. 특히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무역단체가 가입한 국제공정무역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특히 양심적 언론이 세계무역의 불공정을 고발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 주면서 양심적 소비자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지. 예컨대, 1996년에 미국의 월간 <라이프>가 "어젯밤 당신이 150달러를 주고 샀을지도 모르는 나이키 신발을 만든 사람이 열두 살 된 파키스탄 어린이며, 그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은 고작 2달러에 불과하다." 라고 고발하자 많은 선진국 시민들이 깊은 충격을 받았지.

그런 반성 결과, 파키스탄 어린이를 착취해 만든 축구공을 판매하던 유명 스포츠업체들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재봉사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소매가격의 6%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코코아를 구입해 팔던 기업이 제값을 주고 원료를 사들이라는 소비자의 압박에 못 이겨 공정무역을 선언하기도 했다. 공정무역 표시가 된 상품은 지난 5년간 때마다 평균 40%씩 늘고 있단다.

국제식품노조연맹의 농업협력 담당자 수 롱레이는 "공정무역은 아직 전 세계 농산물 무역 규모에서 일부분인 틈새시장이지만 자유무역이나 신자유주의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의식을 일깨우고 세계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다국적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고 말하지.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약 2조, 1500억원)어치로, 2005

년에 비해 42%늘었다. 공정무역 인증제품만 2000여 개 품목이 유통되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 환경,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예컨대 농산물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품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 두레생협이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했고, YMCA, 아름다운재단, 여성환경연대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또 '에코페어트레이드'의 온라인 사이트 등엔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커피, 직물, 설탕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 속에서 나온 거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007년 11월, 한국생협연합회와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다른 나라 여행도 '공정무역'으로 갈 수 있어. 어떤 평화운동가는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하지만 관광의 경제적 이익 대부분은 G7 국가에 속한 다국적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하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다시 빠져나가는 누순율이 네팔 70%, 태국, 코스타리카 각각 60%와 45%로 관광 수익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 관광 자본을 통해 나라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역사회를 살리는 여행을 하며, 현지 원주민을 통해 문화를 소개받는 것 등이 '공정무역'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고생은 현지인이 하고 돈은 딴 사람이 버는 그런 잘못된 여행은 피하자는 거지. '이매진피스'의 이해영님 말대로 '여행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관계'라고 보아야 해. 그래서 '공정여행'도 결국 '공정무역'인 셈이야.

한편, 최근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등 대안무역에 대해 아는 이는 3%로 나타났다. 아직 한국 사람들은 공정무역을 잘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품질에 차이가 없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6%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공정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 새로운 문제나 한계는 없나?

그런데 말이야, 공정무역조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예컨대,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옳은데도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입해 먹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지.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이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좀 여유가 있는 이들만 즐길 수 있다는 것이야.

또 커피나 코코아를 제값에 사 주는 것은 좋지만 바로 그걸로 인해 후진국의 농민들은 돈벌이 경제에 편입되어 진정한 자립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먼 외국의 수요에 끊임없이 의존하여 한두 가지 돈 되는 작물만 생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언젠가는 땅이 황폐해지고 삶의 터전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게다가 공정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직거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사업가가 됨으로써 그저 또 다른 기업에 지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겠지. 결국 공정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현지 농민이나 농민이 아닌, 공정무역 업체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는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한, 공정무역체계는 결국 자본주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지. 특히 후진국 빈곤의 근본 원인인 정체,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외면하고 일부 품목들의 '공정거래'에만 치중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

물론 이런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무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이것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 그런데 문제는 공정무역조차 그 자체가 내세운 가치들을 온전히 실현을 못하고 있을 때야.

## 예를 한번 들어 볼까?

2007년 여름에 '한겨레21'과 '여성환경연대'는 네팔의 대표적 공정무역 업체인 '마누시' 작업장을 방문했어. 그에 따르면, 말로는 공정무역이지만 '민주적 노동자' 또는 '주체적 생산자', '생태적 생산'과 같은 개념들은 아직도 현실화하지 못했다.

실제로, 네팔의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마누시' 공장엔 네명의 여성이 수증기의 더운 열기 아래 매캐한 염색약품 냄새를 맡으며 염색 노동을 하고 있었어. 그들은 '가슴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호소했어. 화학약품에 오염된 물은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갔고. 여기서 '서구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천연염색보다 화학염색을 많이 한대. 마누시 매출의 65%는 화학염색을 선호하는 CTM, 텐사우전드빌리지, 옥스팜 등 서구 공정무역 업체들이래.

이렇게 공정무역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서구 시장주의에 편입되는 게지. 공정무역이



보호하려던 각 나라 고유의 가치들이 안타깝게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지. 흥미롭게도, 공정무역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 기반을 허무는 '이카루스 패러독스'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모범적 공정무역 업체의 한 단면이라니 실망이기도 하지.

또 네팔에서 23년째 공정무역을 해온 또 다른 업체 마하구티 재봉에서는 22명의 여성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고양이모양의 눈베개를 만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한 달에 3천 루피(4만 5천 원) 정도 받는데. 그러나 자신이 만든 눈베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눈베개를 사가는 사람은 누구지 모르고 있었다. 동료들이 모여 작업 환경이나 작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공정무역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민주적, 주체적 노동'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지. 그나마 직접 고용 노동자들은 의료수당이나 보너스, 최저임금 등이 보장되나 나머지 90여 개의 지역 생산자그룹에겐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정무역 업체라고 해서 노동과정이나 생산과정, 노동관계가 모두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지.

앞으로 공정무역이 온전히 그 정신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가격만 더 지불하는 것에 그칠 일이 아니라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현지 생산자와의 인간적 유대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

이런 문제나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공정무역의 정신은 매우 소중하지. 그것은 결국 사람과 자연을 모두 살리는 일이니까. 예컨대 네팔 동부의 한 오지 마을인 라스날로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여섯 시간을 간 뒤, 산길을 따라 다시 네 시간을 걸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을이지.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종이를 생산해 왔지만, 판매처를 찾지 못해 주민들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지.

그러다 2007년 2월에 네팔의 공정무역 업체인 마하구티가 유엔개발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이 마을에서 생산된 종이 10톤 전량을 매년 사들이기로 했어. 마하구티의 대표가 마을 사람들이 다음 해까지 모두 먹고살 수 있도록 20만 루피를 먼저 지급하는 바람에 이 마을 사람들은 먹고살 걱정을 덜게 되었지.

또 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네팔리 바자로'는 공정무역으로 번 수입의 일부를 네팔 차 공정무역 대표 업체 'KTE'의 차를 생산하는 마을의 아동교육 사업에 투자한다.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의 2004년 공동 조사에 따르면, 네팔 여자 어린이의 70%, 남자 어린이의 60%가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2001년 시작된 이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은 2006년까지 모두 172명이라.

또 마하구티는 매년 수익의 40%를 '아시람'이라 하는 여성교육 공동체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아시람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옷감짜기, 봉제 기술, 간단한 산수 등을 가르친다고 해.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판매하는 동티모르산 '착한 커피'는 최근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렵게 독립을 한 이 나라가 다시 경제적으로 강대국에게 종속되어 고통스럽게 살게 되지 않도록, 즉 정치적 독립에 뒤이은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참된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과 무지이지만, 일단 사태를 좀 알고 나면 중요한 건 실천이지. 제아무리 많이 느끼고 안다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실천을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겠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씩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실천을 통해 이웃이나 자연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우리 동네나 자주 가는 곳 근처에 '공정무역' 물품이 있는 데를 한번 둘러나 볼까? 그리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혹시라도 그 중에 맘에 쏙 드는 것,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만 사 볼까?

이때 꼭 명심할 것, 알지? 그런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걸 만든 사람과 '보이지 않는 연대'를 실천한다는 거 말이야!

\* 강수돌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조치원 신안1리 마을이장  
- 홍세화, 우석훈 외 <거꾸로 생각해 봐!> 중에서 -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데얼스 어 플레이스 인 유얼 하트  
 And I know that it is love  
 앤 아이 노우 댓 잇 이스 럽  
 And this place could be  
 앤 디스 플레이스 크 비  
 Much brighter than tomorrow  
 머치 브라이트어 덴 투마로우  
 And if you really try  
 앤 이 퓨 리얼리 쉐라이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유얼 파인 데어스 노 닛 투 크라이  
 In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인 디스 플레이스유얼 필 데얼스 노 허트 오어  
 sorrow  
 써러우  
 There are ways to get there  
 데얼 아 웨이스투 갓 데얼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어 이눓 폴 더 리빙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메이커 리틀 스페이스 메이커 베러 플레이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힐 더 월드 메이킷 어 베테러 플레이스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포 유 앤 포 미 앤 더 인타이어 휴먼 레이스  
 There are people dying  
 데얼 아 피플 다잉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 이너프 폴 더 리빙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메이커 베러 플레이스 폴 유 앤 폴 미  
 If you want to know  
 이 퓨 원 투 노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와이 데얼스 어 럽 댓 캔낫 라이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럽 이스트롱 잇온리 케얼스 폴 조이풀 기빙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이 피 쉐라이위 셸 시 인 디스 블리스  
 We cannot feel fear or dread  
 위 캔낫 필 페어 오어 드레드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위 스탱 이그지스팅앤 스탱 리빙  
 Then it feels that always  
 덴 잇 필스 댓 어웨이즈  
 Love's enough for us growing  
 럽스 이눓 폴 어스 그로잉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메이커 베러 월드 메이커 베테러 월드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힐 더 월드 메이키러 베러 플레이스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포 유 앤 포 미 앤 더 인타이어휴먼 레이스  
 There are people dying  
 데얼 아 피플 다잉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 이눓 폴 더 리빙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메이커 베테러 플레이스 폴 유 앤 폴 미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앤 더 드림 위 웨얼 콘시브딘  
 Will reveal a joyful face  
 윌 리빌 어 조이풀 페이스  
 And the world we once believed in  
 앤 더 월 위 원스 빌리브딘  
 will shine again in grace  
 윌 샤인 어게인 인 그레이스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life  
 덴 와이 두 위 킵 스트랭글링 라이  
 Wound this earth crucify its soul  
 운 디스 어쓰 크루시 파잇스 소울  
 Though it's plain to see  
 도우 잇스 플레인 투 시  
 This world is heavenly  
 디스 월 이스 헤븐리  
 Be God's glow  
 비 갓스 글로우

We could fly so high  
위 크드 플라이 소 하이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렛 아울 스피릿스 네버 다이 인 마이 하트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아이 필 유 아 올 마이 브라더스  
Create a world with no fear  
크리에이러 월드 윗 노 필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투게더 위일 크라이 해피 테얼스  
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시 더 내션스 턴 데얼 소드스 인투  
plowshares  
플라우셰어스  
We could really get there  
위 크드 리얼리 겿 데얼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드 이너프 폴 더 리빙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메이커 리틀 스페이스 투 메이커 베테 플레이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힐 더 월드 메이킷 어 베테 플레이스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폴 유 앤 폴 미 앤 디 엔타이어 휴먼 레이스  
There are people dying  
데얼 아 피플 다이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 이너프 폴 더 리빙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메이커 베테 플레이스 폴 유 앤 폴 미  
There are people dying  
데얼 아 피플 다이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 이너프 폴 더 리빙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메이커 베테 플레이스 폴 유 앤 폴 미  
There are people dying  
데얼 아 피플 다이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이 퓨 케얼 이너프 폴 더 리빙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메이커 베테 플레이스 폴 유 앤 폴 미

MEMO

MEMO

MEMO

MEMO